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 최고의 불교대학!
동국대학교 인재불사에 함께 해주세요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649193 (예금주: 동국대학교)
후원문의 : 02-2260-3300(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3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월 19일)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사찰음식 배운 주한대사 부인들 "원더풀"

주한외교대사배우자회(ASAS)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과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는 2월 22일 서울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ASAS 회원 8명 대상으로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전문가 성견 스님의 지도아래 오곡밥과 묵나물을 만들어 시식했다.

글=김내영 기자,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할교구 예산서 '천진불 한마당'이 사라졌다

조계종 직할교구, 각종 사업예산 대규모 감축

경상회계 19% 줄여 예산 확정
'천진불 한마당' 예산 전액 삭감
포교조직, 장학사업도 타격 입어

직할교구 특성상 분담금에 의존
중앙분담금 납부 후 17%만 운용
경상비 지출 커져 사업예산 축소
'수도권 포교활성화' 위축 우려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수도권 사찰 새싹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으로 단합하고 불심을 키우는 축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2011년 시작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지난해 10월 4년 만에 다시 열린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700여 명의 천진불이 뛰어놀며 계층포교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주관하는 조계종 직할교구의 올해 예산이 한계에 부딪혔다. 직할교구는 이뿐만 아니라 포교조직 지원, 계층포교, 장학금 지원을 비롯해 사실상 모든 사업예산을 감축하기로 해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계종 직할교구(교구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올해 첫 교구종회를 열고, 교구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2023년도 대비 경상회계는 19.2%(9180만원) 줄어든 3억8550만원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차년도 이월금 예산이 지난해보다 5000만원가량 늘어난 금액이어서 사실상 사찰관리와 포교사업 예산 감축 폭은 전체 예산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산 감축 사업이 바로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이다. 지난해 585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행사를 치렀지만 올해는 전액 삭감했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며 수많은 사찰 어린이법회가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난해 여법하게 행사가 열려 호응을 얻었지만 올해는 개최 자체가 어려워졌다.

또한 직할교구 포교조직 지원 항목의 '조계종주지협의회 활성화'와 '직할교구신도회 조직 강화' 사업도 절반 내외로 예산이 줄었다. 계층법회와 장학금 지원 역시 지난해 대비 27%가량 감축했다.

직할교구가 이 같은 삭감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에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직할교구는 본사를 갖춘 일반적인 교구와는 다른 수입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직할교구가 평균적으로 거둬들이는 분담금은 연간 16~18억원 수준. 이 가운데 83%는 중앙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결국 직할교구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체 분담금의 17%인 약 3억원뿐이다. 일반적인 교구처럼 입장료나 재(齋)수입 등 분담금 외 발생하는 수입이 전혀 없다.

여기에 더해 총무원이 부담하던 직할교구 사무처 종무원 인건비 일부가 몇 년 전 직할교구로 이관되면서 사무처 경상비는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직할교구 사무처 종무원 4명 중 2명은 총무원 순환 보직으로 인해 업무를 맡기 때문에 관련 인건비를 총무원이 부담해왔던 것. 2018년 6000만원대였던 직할교구 사무처 연간 인건비는 현재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 한계의 원인은 알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직할교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중앙분담금 요율을 낮추면 총무원 예산이 줄어들기에 중앙분담금 요율 조정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기에 가깝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인 기금이 필요한데 사찰경제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져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할교구의 한 상임위원스님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찰경제도 좋지 않아 포교에 어려움이 클 것 같다"며 "(예산 감축은) 아쉽지만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총무원 총무부장과 직할교구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성화 스님은 "예산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천진불 어울림 한마당은 행사 개최가 가능할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성파 종정예하 "자장매 더욱 붉다"

계묘년 동안거 해제 법어 내려 용맹정진 당부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오는 2월 24일 동안거 해제일을 앞두고 해제법어를 내려 운수납자들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성파 대종사는 2월 21일 발표한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여울의 성난 파도 바람과 비를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 갈수록 한가롭네"라고 게송을 읊었다. 대종사는 이어 "물보라 넘어 펼쳐지는 경치는 백로의 곧고 강한 다리와 물결을 이기는 힘이 아니면 보지 못하며, 쏟아지는 물줄기의 틈새를 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은 무슨 경치를 보았는가?"라고 물으며 안거를 성만한 대중의 수행을 점검했다.

성파 대종사는 또 계묘년 동안거를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다사다난한 세간 일이 꿈같이 스쳐갔다"고 평하고 "세간의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영각 앞 자장매는 더욱 붉고 무풍한송은 더욱 푸르다 하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에서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계묘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전국 93개 선원(총림7·비구선원59·비구니선원27)에서 총 1861명의 대중이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정예하 · 총림 방장 법어 8면〉

윤호섭 기자

"의사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오십시오"

의료대란에 각 종단 총무원장 호소문 발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이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했다.

진우 스님은 2월 22일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 개혁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 여러분들이 대규모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현장에서 환자를 살필 의사가 없는 전례없는 의료 공백이 시작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다.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진우 스님은 또 "위기는 기회로 바꾸고 갈등은 화합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생명의 무게를 지고 계신 의료계 종사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상생의 지혜가 발현되기를 기원한다. 한국불교계 역시 여러분의 어려움과 함께하며 선명상,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진 스님은 하루 앞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료계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가 있다. 지금이 국민 안정이 필요한 결정적 순간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숭고한 소명의식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자비심과 불교의 화쟁사상으로 임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감히 여러분께 권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정부에도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진 스님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대승적 검토와 의사와 예비의사들이 요구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명 스님도 22일 발표한 호소문에서 "생명을 다루고 고통을 치유하는 직업은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환자가 볼모가 될 때는 집단행동을 멈춰야만 한다"며 "그것이 의사가 갖는 직업적 윤리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의사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하고 의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승적 대안을 제시 해야만 한다"고 촉구하며 "그것이 국민이 정부를 믿는 위임 통치의 가치 실현"임을 분명히 했다.

신중일 · 윤호섭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 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제7회 묘공학술상 공모

공모분야 :
-한마음선원 및 대행 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응모 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선정 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패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6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석사, 박사, 통합 과정)
선발 인원 : 0명
공모 기간 : 2024년 3월 1일(금)~31일(일)
※ 공모 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모집

발간 시기 : 연3회 - 2024년은 홈페이지 참조
- 2025년부터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투고 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투고 시기 : 연중 접수
투고 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투고 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 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와 심사비, 게재료, 연구지원기관 표시비를 받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서류 케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 470 -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대행선연구원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 SEON STUDIES

군 포교 · 순례…올해도 승가결사체 '풍성'

조계종 교육원, 인증서 수여
신규 단체 7곳·재인증 18곳
범해 스님 "사회 이바지 기대"
결사체 활동 공유 시간도 가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교육원장 범해 스님(오른쪽)이 신규 승가결사체로 인증된 '동불전법단' 대표 동진 스님에게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범해 스님)이 각계각층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결사체 25곳을 선정해 종단 인증서를 수여했다.

교육원은 2월 21일 서울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화엄실에서 '2024년도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인증단체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신규 단체는 7곳이며, 18개 단체를 재인증했다. 교육원은 승가결사체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들 단체에 승려연수교육 점수 50점을 인증하고, 종단보조금을 지원한다.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연수인증 제도'는 전법교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올해 7회를 맞았다.

올해 첫 인증 단체는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계승해 역사·환경·문화재 등을 순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상월삼조회(대표 법원 스님)'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소복소복(대표 반야 스님)' △울력전법을 실천하는 '어울림전법단(대표 선지 스님)'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지원할 '동불전법단(대표 동진 스님)' △군장병 대상으로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 포교에 앞장서는 '호국붓다(대표 세광 스님)' △계층별 출가안내를 기획해 출가진흥에 기여할 '네오(대표 여옥 스님)' △염불의례 교육·연수로 지역 신행활동을 강화할 '중악염불원(대표 덕조 스님)'이 선정됐다.

재인증 단체는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어린이·청소년), 마음쉬는곳(호남지역 청년포교), 세간해연구소(명상교육지도), 자비나눔(교도소·취약계층), 내포전법단(문화활동·캠프), 다르마로드(순례·강의·참선), 안양계(청소년 교화), 영차영차(청소년NGO),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어린이), 천초작은도서관(경전강의), 청암바라밀전법회(태극권수행), 한국명상진흥원(참선명상), 대구감로봉사회(호스피스돌봄), 희망드림(취약계층), 대행보현회 자비애빵(빵나눔), EM지구사랑 작은실천(환경보호), 마하보현승가회(이주민 지원),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불우이웃 지원) 등이다.

교육원장 범해 스님은 "모든 승가결사체는 불교문화순례, 국제포교, 명상교육, 대학생 포교, 군 포교, 청소년 교정교화, 출가 진흥, 염불 의례, 호스피스 돌봄, 걷기 명상, 환경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묵묵히 전법교화의 길을 걷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법교화 활동에 매진하는 스님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스님은 이어 "승가결사체가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전법과 대중불교의 길에 앞장설 수 있길 바란다"며 "왕성한 전법교화 활동으로 우리 사회가 밝고 맑아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증서 수여식에서는 각 단체의 활동 목적과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네오 대표 여옥 스님은 "네오(NEO)라는 명칭은 희랍어로 뉴(NEW, 새로운)라는 의미가 있다.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솔루션인 출가를 안내할 것"이라며 "출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출가자 확대를 이끌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르마로드 대표 혜도 스님도 "화엄경의 인드라망 세계관에 기반해 생명평화 정신을 구현하겠다"며 "참선지도 및 순례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 호감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흥사 주지후보 지혜·금곡 스님 인정

중앙선관위, 자격심사 회의
'이의신청서'는 안 받아들여
금곡 스님, 사퇴 의사 밝혀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후보로 등록한 현 주지 지혜 스님과 전 낙산사 주지 금곡(정념) 스님 자격에 '이상없음'이 결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태성 스님)는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05차 회의를 열고, 신흥사 주지후보 자격심사의 건을 다뤄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홍진 스님은 사퇴서를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제출했으며, 지혜 스님과 금곡 스님의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각각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회의 과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1시간이 넘게 논의했다.

이의신청서는 3교구선거관리위원회가 금곡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금곡 스님이 지혜 스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3교구선관위는 금곡 스님이 낙산사 주지 시절 경내 찻집인 다래헌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했다는 내용과 금품제공 행위를 주장하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 반면 금곡 스님은 지혜 스님이 신흥사 소공원 주차장을 종단 승인 없이 임대해 주지후보 자격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했다.

중앙선관위는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두 후보 모두 자격에 이상없음을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처장 설도 스님은 금곡 스님이 접수한 지혜 스님의 주차장 미승인 임대 건에 대해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은 형식이 종령이므로 종헌종법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적용할 경우 추후 다수의 스님들이 자격 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고, 현재까지 임명된 본사주지의 경우 해당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도 스님은 이어 3교구선관위가 금곡 스님에 대해 접수한 이의신청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결과에 금곡 스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스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과 선거하라는 건 불법선거를 하라는 것과 같다. 종법을 준수해서 살아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승려로서 종단을 신뢰하고 살아왔다. 이번 판단은 전국의 스님과 불자, 국민께서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진우 스님 "보살되려면 육바라밀행을"

봉은사 정초기도 회향법회서
'육바라밀' 강조하며 대중법문



"육바라밀을 행하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고 부처도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괴로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2월 18일 봉은사에서 봉행된 정초 7일 산림기도 회향법회에 법사로 나서 사부대중에게 육바라밀 실천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육바라밀 실천 없이는 성불할 수 없다고 말한 진우 스님은 육바라밀행으로 분별심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지난해 3월 봉은사 백고좌법회에서도 마음의 분별심을 없앨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좋은 마음이 있으면 동시에 나쁜 마음도 생긴다. 부처님은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 중도를 추구하신 분"이라며 "중도를 추구해야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지만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육바라밀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여름에는 낮이 길고 겨울에는 밤이 길지만 1년 전체를 놓고 보면 낮과 밤의 총 길이는 같다"고 예를 들며 "이처럼 행복과 불행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그것을 느끼는 때가 다를 뿐이다. 행복이 오면 반드시 불행도 온다. 이것이 바로 업"이라고 말했다. 고락(苦樂)은 필연이라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행복이 아닌 업장소멸을 기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진우 스님은 업장소멸을 통해 분별심을 내려놓은 존재인 보살에 주목했다. 스님은 "보살은 부처인 동시에 중생이며 신구의 삼업이 청정한 존재다. 분별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며 "보살이 이렇게 분별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바라밀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진우 스님은 "여러분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보살이라는 뜻이 아니라 보살이 되라는 뜻"이라며 "육바라밀행으로 서로를 도와야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바라밀 중 특히 보시에 주목한 진우 스님은 "'내 것을 나눈다'가 아닌 '내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한다. 남이나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분별심을 내려놓기 위해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진우 스님은 대중을 향해 "하나의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것을 업으로써 감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불행을 감수하는 것이 인욕이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보시"라며 "분별심을 내려놓고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가족에게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민우 수습기자

백양사 주지후보 무공 스님 단독 입후보

경쟁 없이 연임 확실시…2월 29일 산중총회 예정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 주지 후보에 현 주지인 무공 스님〈사진〉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다.

제18교구본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월 19일 백양사 새 주지후보 입후보 결과 무공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무공 스님은 2월 26일 열리는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격심사를 거쳐 29일 백양사 산중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다. 무공 스님은 백양사 현 주지인 만큼 자격심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공 스님은 지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4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강원과 중관유식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백양사 재무국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고불총림 선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3월 열린 산중총회에서 백양사 주지후보로 선출돼 4년간 교구를 이끌었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비구니·우바이, 특별한 수행결사 펼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출가수행자와 재가여성불자가 붓다의 길을 가는 여성 수행자로서 한자리에 만나 특별한 수행결사를 펼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3월 18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식'을 봉행한다. 13대 전국비구니회가 실시하는 청정승가공동체는 사찰과 대중소임 또는 직장과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 책임을 다하며 살면서도 수행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수 수행결사다. 위빠사나 수행을 시작으로 간화선 수행 등 실참 및 다양한 명상수행이 4년간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는 초심자들도 쉽게 수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기 명상수행 위빠사나로 수행결사 문을 연다. 초기경전 속 수행체계 이해를 위한 법문과 실참이 병행된다. 스님들에게는 개인 수행뿐 아니라 사찰에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수행방향을 제시하고 여성불자 역시 가족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수행결사는 수행공동체로서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12대 집행부에서 실시한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이번 수행결사가 더욱 특별한 것은 수행을 원하는 신심 깊은 여성불자들의 참가 요청을 수용, 참가대중을 여성불자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비구니스님과 여성불자들이 함께하는 수행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혜결사, 봉암사결사 등 비구스님 중심으로 된 결사는 종종 있었으나 비구니스님과 여성 재가수행자들로만 이뤄진 수행결사는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처음이어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게 13대 전국비구니회 측의 설명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3월 18일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출범
비구니 · 우바이 구성 결사 처음
수행결사 지도법사에 범라 스님

전국비구니회는 여성불자들의 신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비구니 승가로서 여성을 포용하며 함께하는 대승적 정신을 실천, 긍정적 호응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여성불자의 새로운 수행 방향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정승가공동체 일원으로 함께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 수행가풍을 회복하기 위해 △수행자 본분 잊지 않는 경전 독송 수행정진 △결사 청규를 통한 청정승가공동체 순수성 보호 △생활청규 설정 등 각자의 처소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수행결사는 3월 18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에 실시되며 범라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다. 1974년 해인사 삼선암에서 혜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범라 스님은 봉녕사승가대학 졸업 후 8안거를 성만했다. 1989년 태국 촌부리 위백아솜 위빠사나 수행센터 창마이 왓람뻥에서 수행했으며 이후 10년 동안 미얀마 양곤 마하시센터에서 지냈다.

수행결사에는 조계종 비구니스님과 조계종 사찰 및 단체 소속 여성불자면 누구나 동참가능하다. 다만 여성불자는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결사란 뜻을 같이하는 신행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이자 출가자 본연의 자리인 수행자의 길로 함께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하파자파티와 석가족 여성들의 출가 이후, 여성 수행자들은 불교 역사의 모든 순간에 참여하며 끊임없이 전진해왔다"면서 "부처님 길을 따르는 수행자이자 청정승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간절한 신심과 발원이 후대에 이르러 또 다른 결사 정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2-3411-8103

5월부터 문화재→'국가유산'으로 변화

문화재청, 올해 주요 정책 발표
국가유산 체재 전환, 제도 정비
문화재청 명칭 '국가유산청'으로
기후위기 따른 보존정책 수립도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써왔던 '문화재' 명칭이 오는 5월부터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던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며, 변경된 국가유산 체재에 따른 법과 제도 정비로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둔 것은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정비해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7일부터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며,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를 개관하고 전통재료 인증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제정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전문적인 보존·연구·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문화재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에 총 231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이라는 대혁신 과제를 이뤄내기 위해 지난해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 체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면서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하여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광동학원 제13대 이사장에 인묵 스님

2월 15일 제404차 이사회서
2027년 1월 27일까지 임기



불교종립 학교법인 광동학원이 2월 15일 제404차 이사회를 열고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사진〉을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2월 19일부터 2027년 1월 27일까지 4년이다.

학교법인 광동학원은 운허 스님의 원력으로 1946년 설립됐다. 당시 운허 스님은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봉선사 교구본말사 사찰소유 전답 약 59만평과 임야 약 450만평을 출자해 '광동초급중학교'를 설립했다. 이를 모체로 현재 광동학원 산하에는 남양주 광동중학교를 비롯해 광동고등학교와 의정부광동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신임 이사장 인묵 스님은 "설립자인 운허 큰스님의 뜻을 이어 지역의 명문 사학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불교문화체험과 정신문화 함양을 통해 인성교육과 학업 증진이 이뤄지길 바란다.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동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내영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장학회 제19회 장학금 수여식

경인교대 등 29명에 장학금
"참된 사람으로 성장" 당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2월 18일 안양본원 5층 법당에서 제19회 대행장학회 장학금 및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대행장학회는 '이 세상에 큰 일꾼이 될 꿈나무들에게 좋은 거름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 주라'는 대행 선사의 유지에 따라 운영되는 장학회다. 한마음선원 본원과 지원에 소속된 신도로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담당 스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며, 경인교육대학교 재학생 중 불심이 돈독한 우수 학생에게도 수여된다.

이날 장학금은 대행장학생 12명, 한마음장학생 16명, 경인교육대생 1명 등 총 29명의 학생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여러 후원자들이 보내준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이렇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더 많은 꿈나무들에게 밑거름이 되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바란다"고 부탁했다. 신중일 기자

중앙신도회 "재정 안전성 구축하는 한 해"

불자역량결집 디지털 포교사업
불교추모공원 건립 후원 계획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올해 불자역량결집을 위한 디지털 포교사업과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한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에 진력한다.

중앙신도회는 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7-4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 대의원 246명 중 위임 89명을 포함한 158명이 참석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천년을 세우다 결집불사,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및 나눔문화캠페인, 세계일화 국제불교영화제, 신도회 및 신도단체 임원 연수, 총무원장스님 교구신도 친견 대법회 등을 전개한다. 특히 불자역량결집을 위한 디지털 포교사업과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한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교 추모공원 건립 후원은 중앙신도회가 재정안정성 구축을 위해 계획 중인 사업이다. 365.157㎡(약 11만평), 약 30만기 규모로 조성 중인 경기 양주시 소재 추모공원 사업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후원 명칭을 사용케 하고 사업 추진 주체로부터 본 사업 매출의 5%를 기부받는 조건이다. 임은호 기자

法華經專門講說
법화경전문강설
불경(佛經)은 한문(漢文)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불경의 한자(漢字)와 한문의 뜻을 비유하면 음악의 악보와 같습니다.
경전의 한자원리와 한문구성문법도 모르면서 불교를 말하는 것은 악보도 볼 줄 모르면서 음악을 지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성불하셨는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법화경전문강설"을 검색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최광영연구실

여성출가학교 회향…“출가 생각하는 계기”

봉녕사 2월 17일, 졸업식 봉행
참가자 11명 전원에 졸업증서 수여
출가 발심으로 이어진 결정적 계기
진상 스님 “온 세상 희망 빛 되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봉녕사 여성출가학교에 동참한 11명이 한 달간의 일정을 회향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리이타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처님과 닮아가길 서원하며 산문에 든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참가자 11명이 한 달간의 일정을 회향했다. 한국 전통 승가 생활을 경험하며 부처님 제자로 거듭난 참가자들은 출가학교에서 얻은 값진 경험을 토대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굳건히 정진하고, 자리이타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수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가 2월 17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제1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졸업식’을 진행했다. 출신도, 나이도 다르지만 저마다의 고민과 불안을 안고 출가학교를 찾은 11명의 참가자.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아가는 한 달간의 여정에 기꺼이 동참, 이날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졸업하게 됐다.

참가자들은 그간 매일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9시까지 새벽예불·사시불공·저녁예불에 참석했으며 발우공양, 울력, 기초교리 수업 등 일과도 게으름 없이 수행해냈다.

졸업식에서 여성출가학교장이자 봉녕사 주지 진상 스님은 익숙하지 않은 생활환경에서 빡빡한 일정을 원만히 소화해준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졸업증서를 수여하며 진심어린 축하를 전했다. 스님은 “지난날을 참회하고 기도와 수행, 자비로 지혜의 눈을 갖는 성불은 물고기가 용이 되는 ‘어변성룡’과 같다”며 “출가학교에서 한 달간의 수행이 ‘어변성룡’으로 가는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날짜가 지날수록 발효하는 음식이 있다”며 “출가학교를 회향하는 여러분은 항상 자기 내면의 ‘마음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도 치사를 통해 “회향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다. 그간 쌓은 복덕자량을 우리 사회 모든 이에게 나누어주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며 “이 시간부터는 세상 모든 생명에 힐링과 행복을 전하는 ‘행복힐링전도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참가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지금까지 배우고 익힌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푸는 삶을 통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4주간 흔들림 없는 정진으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한 참가자들의 표정은 1월 21일 입교 당시보다 한결 밝았다. 특히 이번 여성출가학교는 아녕(58) 참가자에게 깊은 울림이 됐다.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아녕 참가자는 “늘 부처님 제자가 돼 공부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지만 마음먹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데 봉녕사 여성출가학교를 경험하면서 출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며 “60을 앞둔 나이에 ‘은퇴출가’라는 제도를 알게 됐고,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쁜 일상 속 스트레스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꼭 출가학교를 찾아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각지고 모났던 나도 한 달 사이 많이 둥글어졌다”고 웃음 지었다.

무진향(41) 참가자도 여성출가학교를 통해 출가에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했다. 무진향 참가자는 “흔들릴 때마다 스님들이 곁에서 마음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스님들을 보며 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고, 지금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출가학교를 통해 맺은 인연 덕분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로 여행 떠나자”

‘2024 여행가는 달’ 연계
1박 2일, 내 · 외국인 3만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해 눈길은 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여행가는 달’을 연계한 템플스테이 할인 이벤트다.

1박 2일 템플스테이는 내·외국인 모두 3만원에, 당일형 템플스테이 체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1만5000원에 참가할 수 있다. 전국 약 103개 사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인 1만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 두 배 템플스테이’ 예약은 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내영 기자

벚꽃 피는 봄, 천년고찰서 ‘짝꿍’ 만나볼까?

‘나는 절로, 전등사’ 4월 6~7일
30대 미혼 남녀면 누구나 신청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은 4월 6~7일 강화 전등사에서 1박 2일간 특별한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전등사’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3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 1, 2기에 이은 것이다. 지난해 진행 당시 전화 문의 2000여 건 이상, 이메일 접수 1000여 건 이상이 쏟아지며 신청 시작 반나절 만에 마감된 바 있다. 복지재단은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과 만족스러운 후기에 힘입어 올해는 횟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나는 절로, 전등사’는 강화도에 위치한 천년고찰 전등사에서 30대 미혼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참가자들은 1박 2일동안 불교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는 물론 소원지 작성, 연애 특강, 인구소멸 현상에 대응하는 저출산 해결 방안 공유,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외에 남녀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별도의 시간도 마련된다.

종교에 상관없이 30대 미혼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재단 홈페이지(www.jabinanum.or.kr)에서 접수. 02-723-5117

임은호 기자

여성불자회, 클래식 선율로 새해 시작

2월 21일, 신년하례 및 음악회 계최
대의원총회서 올 한해 사업 승인도
‘천년을 세우다’에 1000만원 후원


김의정 회장과 범해 스님, 선업 스님은 250여 여성불자들에게 새해 선물을 나누며 신년인사를 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신년하례와 클래식 음악회로 갑진년 새해 활발한 시작을 알렸다.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는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차 대의원총회 및 신년하례음악회’를 개최했다. 1~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의원총회와 신년하례법회, 음악회로 진행됐다.

신년하례법회에서 김의정 회장은 “환경, 가정, 평등, 전법, 수행, 문화, 봉사라는 7개의 키메시지를 기치로 첫 걸음을 내딛은 전국여성불자회는 갑진년 새해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역동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한국불교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자 한다”면서 “종단의 대표성을 가진 여성불자조직으로 조직체계를 완성하고 우리 사회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남겨진 차세대 여성인재 발굴 지원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온 역사적 여성불자들을 찾아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과 교육원장 범해 스님, 김의정 회장은 250여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새해 단주와 새뱃돈, 부럼세트 등을 선물하며 신년인사를 나눴다.

참석대중들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돕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2부는 ‘내 안에 음악풍경’을 주제로 한 음악회로 진행됐다. 이날 여성불자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김의정 회장이 “서울에서 천리 떨어진 곳에 천년을 누워계시는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모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정성을 모으겠다”고 하자 진우 스님은 감사의 뜻을 표하고 여성불자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 공무원 불자들, 활동재개 다짐

2월 17일, 봉은사서 신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2월 17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2024 갑진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라와 국민의 편익을 살피는 공무원이 될 것을 발원했다.〈사진〉

정승윤 공불련회장은 코로나19 이후의 활발한 활동재개를 다짐하고 “공불련이 공무원들의 마음의 위안처가 될 수 있길 서원한다”면서 “공불련이 더욱 탄탄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불련 회원들은 발원문에서 “청정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 같이 섬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겠다”고 강조했다.

임은호 기자

보현도량 아미산+낙산대불 4박5일
■ 출발일 5월 26일 / 6월 12일
■ 동참금 145만원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성지순례 3박5일
■ 출발일 6월 11일 ■ 동참금 180만원
보현도량
아미산+구채구+낙산대불 5박6일
■ 출발일 6월 16일 ■ 동참금 175만원
구법승들의 여정을 따라, 실크로드 6박7일
■ 출발일 5월 18일 ■ 동참금 229만원
지장도량 구화산+황산 4박5일
■ 출발일 5월 26일 / 6월 10일
■ 동참금 145만원
■ 지상 무릉도원 세계자연유산 장가계 5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 일본 (오사카/교토 4일, 도쿄/가마쿠라 4일, 큐슈 온천 3일)
■ 인도 11일 (목/토 출발가능)
상담문의 환영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리뉴얼한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에서 2월 28일자로 퇴임하는 양형진 교장이 합장하며 미소 짓고 있다. 1988년 3월 1일 교사로 부임한 양형진 교장은 36년간 은석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사 인생 36년…매순간이 부처님 가피였죠”

특별인터뷰 조계종립 은석초 퇴임하는 **양형진 교장**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만3140일. 2월 28일자로 동국대 사범대학 부속 은석초등학교에서 퇴임하는 양형진 교장의 재직기간 일수다. 1988년 3월 은석초등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했던 그는 오롯이 36년 동안 은석초 한 곳에서 교편을 잡아 아이들을 가르쳤다.

퇴임을 앞둔 2월 20일 학교 교장실에서 양형진 교장을 만났다. 36년 교직생활의 소회를 묻자 양형진 교장은 “모든 순간들이 부처님 가피였다”고 술회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입학 경쟁률이 높아서 어깨에 힘을 주며 근무하던 때도 있었고, 미달이 되어 전전긍긍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학교상황이 안 좋을 때는 선생님들도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나더군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학교를 지켰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장 직무까지 맡아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2월 20일) 오전 퇴임 인사차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뵙고 왔는데, 스님께서 당신이 기도·수행할 때 쓰던 염주를 벗어 제 목에 걸어주셨어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혼자 이룬 것이 없어요. 법인 이사장스님부터 동료, 후배 선생님까지 모두가 있기에 지금까지 제가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부처님의 가피였던 것이죠.”

“넌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

양형진 교장이 교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학창시절 선생님의 영향이다. 꼼꼼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정을 본 스승들은 제자에게 “넌 선생님 하면 잘 하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 앞서 초등교단에 있던 큰형 역시 초등교사를 추천했고 양형진 교장은 공주교대에 입학하게 됐다. 1987년 2월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인 충남 홍성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한 양형진 교장은 1년 만에 서울행을 선택한다. 불연(佛緣)이 이끌어서다.

“마곡사 공주포교당 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아서 1988년 3월 1일자로 은석초등학교에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당시 교육경력이 1년인 교사가 은석초등학교에 채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당시 이사장이신 진경 스님께서 ‘교육경력은 적어도 장래가 촉망된다’고 판단하셨고, 파격적으로 채용한 케이스였습니다.”

교사인생 36년, 4913명의 제자

그렇게 시작한 은석초등학교 교사 생활은 지금까지 36년이 됐다. 그를 거쳐 간 제자가 4913명이다. 모두가 소중한 제자이지만,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다. 대표적인 제자가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인 모태범 선수(38회 졸업생)다.

“모태범 선수는 6학년 때 담임을 맡아서 가르친 제자입니다.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500m에서 금메달,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 스피드 스케이팅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요. 그 이후로도 모교에 6200만원 상당의 소방안전물품을 기증도 하고,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후배들에게 1일 명예교사로 원포인트 레슨도 해주는 등 모교에 대한 애교심이 각별한 자랑스러운 제자입니다.”

같은 종목 이상화 선수와의 인연도 소중하다. 양형진 교장은 이상화 선수의 오빠를 2년간 담임으로 지도해 그 가족도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그런 두 선수가 세계적 선수가 되던 순간은 교사 생활 중 가장 기뻤던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인 모태범, 이상화 선수가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동반 획득할 때,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두 선수가 2010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남녀 각각 500m에서 동반 우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때는 저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동문 등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죠.”

모든 것은 ‘학생 교육’ 중심

양형진 교장은 2016년 취임했다. 그 후 8년 동안 양형진 교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그 결과 입학 경쟁률이 1.5대 1에서 8.3대 1로 수직 상승했고, 결원 학생 수도 85명이었던 것이 7명으로 줄었다.

학생들의 교육 환경 인프라도 대폭 확대했다. 미래형 도서관을 신축하고 전 학급을 스마트 교실로 만들었다. VR스포츠 체험관, AR클라이밍 교실, 지능형 과학실, 창의 다목적실,



2019년 모태범 선수의 소방 물품 전달식. 모태범 선수는 양형진 교장의 제자다.

2월 28일자로 은석초교서 퇴임
은석초서 36년 동안 교편 잡아
2016년 교장 부임… 발전 견인
학교 입학 경쟁률 7배가량 확대
아이들 눈높이 맞춰 법당 리뉴얼

모태범 선수 6학년 때 담임 맡아
두 제자 金획득이 가장 기쁜 순간
교권 침해 이슈들 안타까움 많아
“대부분 부모님들은 선생님 신뢰
너무 힘들면 선배, 동료에 도움을”



양형진 교장이 2022년 봉은사 순례법회서 불교문화체험을 지도하고 있다.

전기 가마가 설치된 미술실, 드론 종합 경기장 등 다방면에서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들을 조성했다.

2021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우수 사학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역량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학 감사 인센티브제’의 대상 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교장으로 취임한 후 8년 동안 오로지 ‘학생 교육’에 방점을 찍고 공심(公心)으로 일했습니다. 교장실의 책상, 의자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모든 비품을 전임 교장선생님이 쓰던 것 그대로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교육인프라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를 가장 먼저 알아봐 준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었죠. 무엇보다 동료, 후배 선생님들이 적극 협조해줘 8년 임기동안 학교를 크게 혁신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법당인 ‘연화법당’을 2022년 리뉴얼한 것도 양형진 교장의 임기 중 주요한 성과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건학이념 구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은석초등학교 법당 불사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후불탱화와 불상이 조성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개원 당시부터 불교계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빨간 분채를 사용한 탱화나 우락부락한 사천왕상 대신 귀여운 천진불상과 아기자기한 후불탱화로 법당이 장엄돼 어린이들이 다가가기 쉽게 했다. 야구선수, 축구선수, 빙상선수 등으로 분한 동자승들의 모습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꿈을 꾸길 바라는 바람이 담겼다. 이렇게 리뉴얼된 연화법당은 학교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은석초등학교 연화법당에는 전국 최초로 ‘동자승 탱화’와 ‘천진불 불상’이 조성됐습니다. 이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대종사의 원력을 바탕으로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법당에 대한 문턱이 낮아진 점이 가장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학생들은 법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법당을 편안한 장소로 인식하고 학부모들도 거부감 없이 법당에서 바자회, 연수, 공개수업 등의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바라밀, 학생 교육에 적용

은석초등학교는 불교 유일 사립초교인만큼 법당과 함께 학생·학부모 신행단체가 있다. 어린이 신행단체인 ‘연화 어린이회’는 전교생 중 54%가 가입해 활동 중이다. 인원이 많다보니 학년별로 나눠 정기법회를 진행해야 할 정도다. 또한 찬불가 부르기 대회, 반야심경 암송대회, 불교교리 퀴즈대회 등을 통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며, 졸업할 때는 이사장스님을 계사로 ‘수계’를 하게 된다. 올해에도 92% 졸업생이 계를 받고 불자가 됐다. 명실상부 새싹포교의 산실이라 할만하다.

불교종립학교 특성상 인성교육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양형진 교장은 학생들에게 보시바라밀을 강조한다. 이웃돕기 성금을 낼 때도 부모님께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평소 용돈이나 세뱃돈을 아끼고 모아서 그 돈을 기부할 것을 권한다. 이 같은 교육관은 초등교사였던 큰형의 영향이 크다. 큰형은 박봉인 교사 월급 중 5%를 쪼개 학생들을 위해 썼고, 그 진심을 알아본 학생들은 큰형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

“기부나 보시도 조기교육이 필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기부하고 나누는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기부를 통한 기쁨이 몸에 배이면 기부나 나눔은 이제 습관이 됩니다. 금요일마다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학교장이 하는 인성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이 때 보시바라밀의 중요성과 기쁨을 실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강조합니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불교의 자비정신을 교육을 통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후배 교사들을 위한 조언

36년 동안 교단에서 활동했지만, 요즘 같은 시기는 없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교권 침해 이슈들은 베테랑 교사인 양형진 교장도 어깨를 움츠리게 만든다. 그럼에도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사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더 많으니 소신껏 교육하라”는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학부모들은 정말 일부입니다. 진짜 대부분의 학부모들께서는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알고 소신껏 교육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힘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구하세요. 당신의 말을 한 귀로 흘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견딜 수 없이 힘들면, 때론 도망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마세요.”

은석초등학교에서 36년을 봉직하고 퇴임하지만, 교사 생활이 끝나지는 않았다. 정년퇴직까지는 3년가량 남았기 때문이다.

“은석초등학교에서 8년간 교장 소임을 봤는데 법률상 더 이상 소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원로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장 공모에 응시했고,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 역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모든 순간이 부처님 가피였네요.”

범어사 신도회장에 이윤희 태금정 대표이사

2월 18일, 정초기도 회향법회서 임명장 수여

2008년부터 8년간 회장 경험해
이 회장 "과거 부족함 채울 것"
방장 정여 대종사 휘호로 격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수행도량이자 부산시민의 정신적 안식처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수행하고 기도하는 도량이 되도록 가람 정비와 불사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신임 신도회장으로 이윤희 태금정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범어사는 2월 18일 보제루에서 열린 '갑진년 정초기도 회향법회'에서 이윤희 신도회장을 소개하며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윤희 회장은 "소임을 맡기 부족한데 믿어주시고 다시 회장으로 활동하게 돼 어깨가 많이 무겁다"며 "앞으로 범어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신도단체와 소통해 화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장은 방장 정여 대종사와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였을 당시 신도회장을 맡아 8년 동안 봉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방장스님과 수불 스님이 범어사 주지셨을 때 제가 신도회장을 지냈다. 부족한 모습이 많았는데 그 부족함과 아쉬움을 이번 기회에 채우라는 말씀으로 생각한다. 많은 경책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신도회장 취임을 축하하며 주지 정오 스님과 이윤희 신도회장에게 각각 '보리군생(普利群生)'과 '요익중생(饒益衆生)'을 적은 휘호를 내리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여 대종사는 "정오 스님은 범어사 주지로 활동하며 더 많은 중생을 부처님께 인도하고 안내하라는 의미를 담아 글을 전달했다. 한 명이라도 더 부처님 품으로 이끌고 제도에 앞장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윤희 신도회장은 '요익중생'의 의미처럼 많은 이들을 이익되고 풍요롭게 이끌어주기를 기원한다. 신도님들과 화합하고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초기도 회향법회에서 진행된 신도회장 임명식.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이윤희 신도회장이 임명장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지 정오 스님은 "방장스님께서 주신 글을 화두로 삼아 주지 소임을 잘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새롭게 임명된 이윤희 회장님께서도 대중과 소통하며 범어사 발전, 부산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회장은 주식회사 태금정 수한기업 대표이사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불교지도자포럼 부회장,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금정총림 범어사 신도회장,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불교연합신도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 외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한국BBS 중앙연맹 부총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 KBS한국방송 전국 시청자네트워크 명예상임공동대표, 대한민국 국군불교총신도회 후원회 명예회장이다. 2012년 범어사 신도회장 당시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부산지역 대학생들, 환경보살 서원

대학생불교연합 부산지부
부산불교환경연대 협약식

2월 18일, 7개 대학 동참
"환경문제 곧 나의 문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이하 대불련 부산지부)가 환경보살의 길을 서원했다.

대불련 부산지부(지부장 김은정)는 2월 18일 부산 해운대 반야선원에서 '대불련 부산지부와 부산불교환경연대가 함께하는 녹색사찰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 대상은 인제대·부산대·동아대·해양대·부경대·동명대·대동대 등 대불련 부산지부 7개 대학이다. 협약식에는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김도영(동명대), 윤나예(인제대) 씨 등 지부 학생들이 참석했다.



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안도 스님과 대불련 부산지부 회원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이기도 한 안도 스님은 "지금 지구환경 오염은 세대를 초월한 전 인류적인 문제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기성세대, MZ세대 구분이 있어선 안 된다"며 "지구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 보호하고 보호받고, 치료하고 치료받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 문제와 같다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환경문제가 바로 둘 아닌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지난 몇 해 동안 부산지부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침체되고 생기를 잃었다. 작년 정기총회 때 봉사활동이 활발한 지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환경운동에 각 지회가 함께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협약식 배경을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스님 말씀처럼 환경문제가 곧 나의 문제임을 알고 환경운동에 앞장서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야선원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대불련 부산지부를 위해 '대불련 녹색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불련 녹색 아카데미는 환경 프로그램과 현장 활동으로 구성되며, 학생들은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반야선원에서 진행하는 환경 법회에 동참한다.

한편 대불련 부산지부는 3월 1~2일 대원각사와 용궁사에서 리더십 캠프를, 3월 30일에는 범어사에서 대불련 합동법회 및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해인정사, 연초고에 장학금 500만원

2월 20일, 기도금 등 모아
"사찰서 명상 등 기회 제공"



거제 해인정사(주지 자원 스님)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했다.

해인정사 주지 자원 스님과 윤동원 신도회장 등은 2월 20일 거제 연초고(교장 공현철)를 방문해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윤동원 신도회장을 비롯한 해인정사 불자들이 지난해 정월대보름과 부처님오신날 등 각종 기도와 법회를 통해 마련했다.

자원 스님은 "해인정사 이웃에 있는 연초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서 모범적인 학생들로 알려져 있다"며 "연초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곳에 사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해인정사를 찾는다면 명상 등 마음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현철 교장은 "지역 내 어려운 시설도 많은데 연초고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선뜻 지원해 주셔서 고맙다"며 "교직원들과 상의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정사는 27년간 정월대보름이면 모감주 숲에서 거제시 한내면 지역주민과 삼성·대우조선소의 번창과 안전을 기원하는 동행사천왕재를 봉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논산훈련소 연무대 3000여 명 병사들에게 법회·아이돌 공연·공양 등의 활동을 펼쳐 군포교에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로 주지 자원 스님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수현불교대학 제6기 졸업식 봉행

27명 졸업…부동 품계증서도
박현자 불자, 포교원장상 수상



전주 수현사 불교대학(학장 일원 스님)이 제6기 졸업식을 봉행했다.

2월 18일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주지 응묵 스님) 3층 대법당에서 진행된 수현불교대학 제6기 졸업식에서는 입학생 34명 중 27명이 졸업했다.〈사진〉

박현자 학생회장을 비롯한 27명의 졸업생은 학장 일원 스님으로부터 졸업장과 신도품계 '부동' 품계증서를 받았다.

모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도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상은 박현자 불자, 수현불교대학 학장상은 최현임 불자, 포교사단장상은 김정숙 불자와 임순자 불자가 수상했다. 또 원력상은 임대한 불자와 안복례 불자, 수현사 신도회장상은 임승민 불자, 수현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상은 김향미 불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불교대학을 졸업한 이지유 학생에게는 특별 장학금이 전달됐다.

학장 일원 스님은 "오늘 졸업식을 축하드리며 더욱 정진하시고 포교사 고시에도 응시하시길 기대한다"며 "여러분들의 삶이 부처님의 법 속에서 더 행복하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박현자 불자는 "학장 일원 스님을 비롯해 주지 응묵 스님 등 강사 스님들과 함께한 도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농사일이 쉽지 않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부처님 품 안으로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고창 선운사 불교대학 수계법회 봉행

불교대학 재학생 15명
불법 따라 참 불자 서원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에서 운영하는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들이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참 불자가 되기를 서원했다.

선운사는 2월 18일 선운사 대적광전에서 '선운사 불교대학 삼귀의계 및 오계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수계식에서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 15명은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며 신행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전계사로 법상에 오른 경우 스님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설하고 수계제자들에게 일일이 연비하고 수계증을 수여했다.

경우 스님은 "선운사 불교대학에서 공부한 불자들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났다"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약수사, 요양병원 어르신 건강 기원

한우리요양병원서 효잔치 공연



부산 사하구 약수사(주지 혜우 스님)가 2월 16일 한우리요양병원을 방문해 효잔치 공연 및 간식을 전달했다.〈사진〉 새해를 맞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에는 약수암 주지 혜우 스님, 옥련암 주지 지연 스님,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 성창용 부산시의원, 조재영 사하구의원을 비롯해 약수암 신도가 동참했다.

약수사는 이날 효잔치 외에도 과일과 빵, 음료수 등 200인분의 간식을 준비해 병원에 전달했다. 약수사는 한우리요양병원 개원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 효잔치와 자비행을 이어왔으며, 지역 경로당도 방문해 효 실천을 강조하고 선물을 전달해왔다.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못 뵈다가 다시 인사를 드리러 왔다"며 "걱정 없이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채창섭 사하구의회 의장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약수사와 신도님들께 감사하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정초기도 공덕 인재불사로 회향

중·고교생 11명에 장학금



인재불사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 스님)가 2월 18일 경내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장학금은 새해 정초기도 회향을 기념하며 중·고등학생 11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30만원씩 총 330만원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익혀 세계 최고 기술자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을 보석 원석처럼 여기고 갈고 닦아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재가 되시라"고 덕담했다.

장학금 전달식 후에는 목종 스님 초청법회가 봉행됐다. 목종 스님은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해하고 성취하지 못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며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마음이 쉼을 얻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하고 얻기를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한편 선광사는 부산지역 불교언론 발전을 위해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할 뿐 아니라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역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 및 저소득 소외 이웃을 위한 쌀 나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환우 돕기 등 자비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남해 미륵암 갑진년 정월 방생법회

국태민안·순직 소방관 왕생발원



남해 미륵암(주지 청운 스님)이 갑진년 정월을 맞아 수륙대재 용왕방생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미륵암은 2월 17일 남해 물건리 어부림 바닷가에서 미륵암 신도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에서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한 국태민안과 제주도 및 문경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재를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방생은 단순히 생명을 살리는 것에 머물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 대로 자비와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서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된다"며 "나와 가족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위해 순직한 고혼과 일체중생을 위한 기도로 우리 사회가 재난과 재해가 없기를 바라는 동체대비의 원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印 오디샤주서 9C 불교유적지 발견

잦은 범람으로 유적 토사에 묻혀
16C 이슬람교 의한 훼손 추정도
2m 달하는 관세음보살입상 주목

박영빈 객원기자

인도 동부에 위치한 오디샤(Odisha)주에서 새로운 불교유적지와 유물들이 발견돼 화제다. 지난 2월 18일 인도 '더 스테이츠 맨' '오디샤 바스칼' 등의 현지 언론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대서특필했다.

INTACH(인도 국립예술 및 문화유산 신탁)의 오디샤 지부는 쿳탁(Cuttack)지구의 가네스와라푸라 마을 근처에서 고대 불교 사원 유적지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이 유적지는 마을 끝에 위치한 논밭 안의 작은 언덕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비루파(Birupa)강 제방에서 불과 150m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이 유적지를 중심으로 여러 유적지와 유물들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INTACH의 비스와짓 모한티 박사와 4인의 연구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현장에서 발견된 고고학 유적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했다. 모한티 박사는 "비루파강의 현재와 고대 범람원 양쪽 강둑에는 수많은 불교 유적지가



유적지 인근에서 발견된 석조 관세음보살상입상.
사진출처=더 스테이츠 맨

점재해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유물은 거의 2m에 달하는 관세음보살 불상"이라며 "안타깝게도 머리는 없어졌지만 도상학적으로 이 불상은 인근의 라트나기리(Ratnagiri), 우다야기리(Udayagiri), 랄릿기리(Lalitgiri) 등의 불교 유적지에서 발견된 관세음보살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전했다.

모한티 박사는 "비루파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대형 불상을 모신 불탑이나 사찰의 유적들이 대부분 토사 밑에 묻혀 있다"면서 "불상이 발견된 현장과 몇 미터 떨어진 작은 힌두사당에서 발견된 몇몇 불교유물들은 무굴 시대의 이슬람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의 전승과 기록 등에 따르면 현지에 존재하는 또 다른 힌두사원인 판추판다바 사원과 타레스와라 사원이 16세기 이슬람교 장군인 칼라파하다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고 전해 이 불상과 불교사원들도 이때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불상이 발견된 곳에 인접한 라메쉬와르 마을의 힌두사원에선 불탑이 발견됐다. 현지조사팀의 일원인 아닐 디르 연구원은 "이번 발견들은 고대에 이 지역에서 불교가 번성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시사한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체계적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발견된 관음상을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도상과 비교하면 대략 서기 9세기 이전의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지표에 드러난 사원의 기단 유적에서 수습된 벽돌파편에서 다양한 문양들이 새겨진 것에서 유적지에 대규모의 사찰이나 불탑이 묻혀 있음이 추정되고 있다. 현재 INTACH 오디샤 지부와 쿳탁지구 문화유산 협회등은 인도 국립 고고학연구소와 문화국과 협조, 추가 세부 조사와 발굴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불상, 문화재 이전에 예경 대상입니다"

日 사찰, 봉안 관음상 전시 취소
신앙 지켜온 현지 의견 수용키로

일본의 한 사찰이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전시회에 출전하기로 한 불상을 더 이상 타 지역에 출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화제다. 사찰 관계자 측은 "불상은 문화재 이전에 예경의 대상"이라고 결정을 번복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12일 일본의 '교토신문'은 불상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다.

일본 시가현 나가하마시(長浜市)를 중심으로 지역에 전승되어온 관음신앙과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2월부터 진행되는 전시 〈관음의 고장·기도와 생활의 문화와 전승〉에 출전하기로 결정됐던 쇼묘지(正妙寺)의 '천수천족관음관세음보살상'의 출진이 돌연 취소됐다.

나가하마시는 일본 최대의 호수인 비와(琵琶)호 북쪽에 소재한 도시로 비와호 안의 섬인 치쿠부시마(竹生島)가 관음성지로 유명해지면서 10세기경부터 관음신앙이 성행했다. 현재 시내에만 130여 구의 문화재급 관세음



출전이 취소된 천수천족관음상.
사진출처=트위터

보살상이 점재해 '관음의 고장'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이 중 시내 쇼묘지에 봉안된 천수천족관세음보살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높이 약 42㎝의 목조입상이다. 이름은 천수천족이지만 실제로는 40족 40수의 손과 발이 묘사되어 있다. 일본에서도 매우 드문 도상으로 학계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어 나가하마시의 관음신앙과 관련된 전시회에 자주 출전돼 왔다. 시 측은 사찰의 갑작스런 출전취소 통보에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쇼묘지 측은 "신도회의 임원들 사이에서 '관음상이 본래에 계셔야 할 곳이 아닌 타 지역에 너무 자주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특히 관음신앙이 깊은 신도들을 중심으로 타 사찰이나 지구의 관음상에 비해 출전되는 횟수가 많고, 계속되는 분해와 운반 등에 불안이 많다"고 말했다.

쇼묘지 신도회의 한 관계자는 "본래 불상이 계셔야할 사찰에 봉안된 상태로 계시는 것이 옳다"면서 "문화재나 전시품 이전에 예경의 대상이란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은 "불상을 타지역에 모셔가서 전시하는 것보다 타 지역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지역의 주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나가하마시 지역역사개발실의 모리오카 켄야 실장은 "지금까지 출전을 취소했던 적이 없었기에 유감이지만 실제 신앙을 지켜온 현지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측은 이번을 계기로 장래에는 관람자들이 현지 사찰 등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중심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스페인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성벽도시 카세레스
산티아고 순례길 인근에 9만평 규모로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에 조성될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감도. 사진출처=BNN Breaking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강세한 서양에서 청년들이 불교에 대한 철학적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톨릭 문화가 깊은 스페인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이 조성된다. 지난 1월 5일 홍콩의 '비엔엔 브레이킹'은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에 대규모 전법중심도량 조성 소식을 전했다.

스페인 카세레스 마을은 스페인의 유명한 성지순례길 '산티아고 순례길' 길목에 있으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성벽 도시다. 이 지역에 9만평에 달하는 대규모 전법중심도량을 조성하는 '위대한 부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불교문화 단지에는 높이 47m, 6000t에 육박하는 거대 백옥 불상과 정원, 수행 공간, 요사채, 도서관 등이 건립될 예정이며 룸비니동산재단이 주도한다.

룸비니동산재단의 후원자 리카르도 게레로 스님은 "'위대한 부처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흐름이 아시아로 향하는 가운데 아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종교적 공존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나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나 간절히 찾아 헤매던 영적 해답은 불법(佛法)에서 찾았다"면서 "부처님 가르침 속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일련의 가치관이 담겨있어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회학연구센터에 따르면 가톨릭 본산인 스페인 사람들의 36%만이 가톨릭 신자이며 이 중 18%만이 성경 실천을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스님은 "부처님 법을 전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전법중심도량 설립 목적을 밝혔다.

사업 부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팽팽한 대립이 있었으나 극적인 타협 끝에 최초 선정 용지에서 10㎞ 떨어진 세로 데 로스 로마노스로 결정됐다. 환경단체 디아스 회장은 "사업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지금은 전법중심도량 설립에 긍정적인 견해"라면서 "자원이 많지 않은 카세레스 마을에 다양한 종교 문화의 접촉, 상호 관용 등을 통한 독특한 관광 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룸비니동산 재단은 2019년 마드리드에서 설립된 국제재단으로 평화와 자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법중심도량 조성과 문화, 사회, 예술, 교육, 관광 및 스포츠에 대한 협력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스리랑카,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지정

캔디 지역 불교 중심지로 육성
국제 불교 박물관 설립 예정도



대통령 사무국에서 승가에 자선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출처=스리랑카 미러 닷컴

지난 2월 16일 홍콩의 '비엔엔 브레이킹'은 스리랑카의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지정 소식을 전했다. 스리랑카에서 불교의 정신적·문화적 유산이 후대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리랑카 정부는 풍부한 문화와 종교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근 불교 사원을 11개소를 성지로 공식 선포했다. 스리랑카에서 성지로 인정받은 사원은 142곳으로 늘어났다.

스리랑카 라닐 위크레마싱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2300여 년간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스리랑카의 불교 보존과 진흥, 성스러운 진리를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단순한 보존을 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스리랑카의 삶의 방식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할 것을 약속하며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불교 전통이 깊은 캔디(Kandy)를 불교학 연구와 불교 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하 비하라 대학과 국제 불교 박물관을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불교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사업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 불교 성지 11개소 추가 발표에 앞서 승가를 기리며 대통령 사무국 측의 자선 기부가 이뤄졌다.

김민재 객원기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등 설치 할 인 — 설치 스카이 3월 30일까지 할인 / 다양한 연잎 등살 등작업 3월 말까지 행사 중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 수제부적 50장 20,000원 /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자장매 더욱 붉고 찬 소나무 푸르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激石灘聲如戰敲(격석탄성여전고)하고 翻天浪色似銀山(번천낭색사은산)이로다. 灘驚浪打風兼雨(탄경랑타풍겸우)나 獨立亭亭意愈閑(독립정정의유한)이로다.

바위 치는 여울의 물소리 전쟁터 북소리 같고 하늘 덮은 물보라 은산과 같네. 여울의 성난 파도 바람과 비를 때리지만 홀로 서 있는 백로의 마음 갈수록 한가롭네.

제방 선원의 선객들이 삼동결제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도다!

청규를 준수하고 대중이 화합하여 화두참구의 일념으로 정진하니 다사다난한 세간 일이 꿈같이 스쳐 갔도다.

마치 여울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백로와 같이 힘차게 쏟아지는 물줄기를 이겨내니 화두가 타파되고 수행자의 본분이 분명히 드러났도다.

물보라 넘어 펼쳐지는 경치는 백로의 곧고 강한 다리와 물결을 이기는 힘이 아니면 보지 못하며, 쏟아지는 물줄기의 틈새를 보지 못하면 드러나지 않으리라. 그대들은 무슨 경치를 보았는가?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세간의 많은 이들이 영축산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영각 앞 자장매는 더욱 붉고 무풍한송은 더욱 푸르다 하리!

細思乃不然(세사내불연)하고
眞巧非幻影(진교비환영)이로다.
欲令淨土妙(욕령정토묘)면
不厭空且靜(부염공차정)이로다.

자세히 생각하면 곧 그렇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묘함은 환영이 아니라네. 오묘하게 좋은 정토를 만들려면 공과 정을 싫어하지 않아야 하네.

해제했다 방심말고 때때로 자신을 살피라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見性悟道我看我
看者與境本不二
把定繩頭證無爲
無言童子呵呵笑

견성하여 도를 깨침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본래 둘이 아니다.
화두 들어 무위법을 체증했다면
말 못하던 동자가 하하하고 웃을 것이다.

삼동결제동안 정진하신 모든 불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선원이건 염불원이건 강원이건 각기 인연 따라 정진하여 오늘 해제에 이르렀습니다. 결제 때 세운 서원을 얼마나 성취했고 조사의 관문을 몸소 뚫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진이란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是甚麼?

실체가 없는 나이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나입니다. 이 나는 실체가 없으니, 나라고 하지만 내가 아니고, 그렇다고 나 아니라고 하여 나 외에 따로 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는 나와 나 아님의 둘이 아니고, 우주와 내가 하나이며 유정과 무정이 다 같이 나의 본바탕입니다. 이 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나는 현현(玄玄)한 무아(無我)이면서 동시에 역역(歷歷)한 진아(眞我)입니다. 해제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시시때때 행주좌와 어묵동정에서 나를 놓치지 말고 살피고 살피십시오. 咦!

관음보살 부르는 생생한 이 물건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한 생각 화두에 제행이 총섭이 되니 얼마나 한가한가! 납자의 이 여유, 이 멋.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무슨 맛으로 사나? 산 눈동자 환희심이다. 일체가 일반 반(般)이요, 둘이 아니니 같을 야(若), 반야로다. 눈뜬 이 자리 응관이요, 반야요, 불가사의 이뭘까다.

"이륙시중 부작일물(二六時中 不作一物). 어떤 것도 짓지 마라. 쉬지 마라. 입이 벌려져 감탄해져도 한 주먹으로 쳐 날려버려라. 아방궁이라 해도 한 발로 차 뒤집어 엎어버려라. 기운 있을 때 더욱 다그쳐라. 재미없는 곳에 재미를 봐라. 쉬어라. 목전에 역력하다."

경허스님 법문입니다. 아, 통쾌하다!

새벽 대종소리 개운해지네, 세상이 개운해지네. 끝없는 삼보의 대자대비, 우렁찬 한 가닥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 서리어 한 모양으로 둥글었네. 하늘땅이 어루만져지네. 산하대지가 어루만져지네. 백억 생명들이 어루만져지네. 극도의 이 고요, 한 생각 이 반야, 이 활기 세상은 이 품 안이네. 이뭘까 품 안이네, 보고 듣는 응(應), 응하는 이 신비! 응관(應觀) 십만호 집집마다 문 두드리니 응답하네.

응관법계성, 부처님 전 재산 이렇게 와 있었네. 유아독존(唯我獨尊), 다 물려받았네. 아, 내 책임이다. 머슴, 일머리 아는 머슴, 상머슴이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뭘까? 지우고 지워, 텅텅 비어 시원하게 숨통 터지게, 돌이켜질수록 시원하게 숨통 터지게, 무진삼보 대자대비 어루만져질 수밖에 없네. 다 안아줄 수밖에 없네.

대중 발우공양 목탁소리에 죽비소리에 시간 따라 구절구절 이뭘까 화두 이 공양이 감당이 됩니까? 깨워 원활해진 핏길, 벙실벙실 웃게, 천금도 녹일 수 있게, 구할 것이 없지만, 바랄 것이 없지만 세세생생 보살행 준동함령등피안(蠢動含靈登彼岸) 세세상행 보살도 벅찬 이 명분, 아! 벅찬 이 명분이여! 이글이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보이는 세계, 들리는 세계, 보는 자리, 듣는 자리, 본다, 듣는다, 마하 반야바라밀, 엄청나다, 이 놈이여, 이 행복이여!

둘이 아닌 한 덩어리 법계성, 응관법계성. 보고 듣고 응하는 이 주인공, 일체는 이 물건의 조화. 일체가 유심조(唯心造), 생명의 바탕, 응하는 이 물건. 천파만파가 응하는 이 자리로 녹아져, 둘이 아닌 이 자체로 녹아져, 무한의 응(應), 흔적이 없는 영(0), 모든 생명의 바탕 이뭘까?

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아, 만고의 휴식처 이~뭘까? 위음왕불 이전부터 이와 같았네. 이렇게 쉬었었네, 즉하에 이뭘까? 알 수 없는 불가사의 이뭘까가 이렇게 지우고 비워 받치고 있었네. 경허스님,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시아가(是我家), 우뢰같은 충격이다, 엄청나다. 삼천대천이 이 시(是)로 다 녹아졌네! 화두뿐이네. 〈중략〉

저승사자가 못 찾는 끝 파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 곳 생기 펄펄한 살아있는 공부의 현장, 나물 다듬고, 불 때고, 저승사자가 못 찾는 감추어져 목숨이 보전되는 곳, 말단, 끝 파도. 어린아이 어미 찾듯 가깝게 간절한 곳에 밝은 해 동천에 둥그렇게 솟아오른다. 무슨 가풍이냐? 방(棒)과 할(喝) 빗방울같이 갈증을 풀어 적셔주네.(나무아미타불)

하늘 별무리 구름사이로 수덕사 관음바위 전각 틈새로 봄이 깔려오고 있습니다. 노승의 다리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대자대비 넘치는 사랑의 관세음보살은 순간순간 쓰고 있는 고마운 이 육신입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는 성성한 이 물건 응관이요, 이뭘까요, 구경열반입니다.

눈 뜨기 전에 깔려있는 이 고요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숨길 이~뭘까?

2월 24일 계묘년 동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원고는 2월 22일 기준으로 결제 당일에 하신 방장스님 법어는 싣지 못했습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동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는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결제만 있다면 그것은 결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요 또 해제만 있다면 그것 역시 해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가 있는 결제야 말로 제대로 된 결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결제가 있는 해제야 말로 해제로써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제가 있기 때문에 해제가 있는 것인데 해제가 결제와 무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해제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해제 때도 항상 결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만행을 하면서 선지식을 찾았고 또 문답을 하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월화(月華)선사가 해제를 맞이하여 찾아 온 납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

"대용(大容)지방에서 결제를 마치고 왔습니다."

"동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는가?"

"서쪽 길로 왔습니다."

"서쪽 길로 왔다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은 만났는가?"

그 말을 듣고 납자는 한동안 잠자코 있다가 갑자기 절을 올리니 선사께서 말했습니다.

"나에게 절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법담인데 결제를 어디에서 했다는 대답의 한마디 한마디는 생활 속의 대화로 격을 낮추어 버렸습니다. 아차! 하고 늦게라도 알아차렸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상여 뒤에 약봉지를 매단 격입니다.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이 상여 속에 있는데 뒤늦게 약봉지를 처방받은 것과 같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서쪽 길로 왔다면 서방정토의 아미타불은 만났는가?'라고 했을 때 차라리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화두로 삼으면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면 더 나을 뻔 했습니다. 그러면 절을 올릴 일도 없고 월화선사께 제대로 된 한마디를 얻어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하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결제공부를 못했으니 제대로 된 해제공부도 못한 것입니다.

해제랍시고 제대로 수행도 하지 않으면서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니느라고 짚신만 닳게 한다면 그런 수행자에게는 반드시 염라대왕이 짚신값을 청구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농부는 봄에 한 알의 종자를 심고 가을에는 추수를 합니다. 세상 전체에 노는 땅이 없지만 그런 농부도 굶어죽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납자들은 심전(心田) 즉 마음 밭을 농사짓습니다. 심전을 일구고 가꾸는 일에 해제와 결제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해제를 결제처럼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걸망 속의 발우를 제대로 들고 다닐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륙시중소불첨다(二六時中小不添多)하니.
일일안거시시자자(日日安居時時自恣)로다.

하루 스물 네 시간 적어도 더할 수 없고 많아도 뺄 수 없으니. 일 년 삼백육십 날마다 안거하고 수시로 자자를 하도다.

본분사 해결 위한 정진을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석 달 동안 화두일여 속에서 확철해서 무겁게 짓누르는 의심 덩어리를 해결한 눈 밝은 납자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심 덩어리를 해결하지 못한 납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고 정진하는 데는 결재 해제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정토예토(淨土穢土)가 본래일심(本來一心)이요
생사열반(生死涅槃)이 종무이제(終無二際)니라

정토와 예토가 본래 한 마음이요 생사와 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맑고 깨끗한 세계가 따로 있고 더러운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더럽고 깨끗함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본래 마음은 맑고, 如如(여여)해서 연꽃과 같은 마음인 것이다. 근본 마음 자체는 탁 트여서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맑은 마음 그 자체에 미움도 없고 성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 된 마음으로 밉고 곱고 깨끗하고 더럽고 온갖 마음에서 차별 경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 바탕은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늘 맑고 如如(여여)한 것이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덮여서 어두컴컴하다고 해서 하늘 바탕이 어두컴컴한 것은 아니다.

어디선가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검은 먹구름은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면 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맑고 파란 하늘입니다. 하늘 자체가 때가 묻거나 깨어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맑고 파란 하늘입니다.

우리가 모두 간직한 근본 마음은 마치 파란 하늘과 같아서 더럽혀지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맑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온갖 생각들이 어지럽게 일어나서 온갖 마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의 그림자에 속아서 온갖 괴로움을 만들고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生死(생사)와 涅槃(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생사가 있지만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생사와 열반이 本空(본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인 것입니다.

만경무한(萬境無限)하여 함입일심지내(咸入一心之內)니라.

만 가지 무한한 경계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 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경계가 모두가 자신의 한 마음에서 분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만든 경계에 속아서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해탈은 그 무엇을 갈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으며 어디로 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 그대로 如如(여여)해서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습니다.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 一如(일여) 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두 사람이 함께 가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리를 설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해탈할 수 있도록 바르게 전도하라고 전도의 사명을 주셨으니 바르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함께 전도의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서양화 같은 불화…'근대불화' 만나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 불교회화실 교체전시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불화는 지금도 여러 형태로 조성되고 있다. 그렇기에 현대의 불화는 전통을 기반으로 현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불화들도 비슷했다. 개화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며 서양화들이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는 불화를 조성하는 화승들에게도 영향이 미쳤다. 그래서 근대기 불화 중에는 서양화 기법의 영향을 받은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중반까지 조성된 근대불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2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19~20세기 불교회화와 초본 총 23건 37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활동한 대표적인 화승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고산 축연(古山 竺衍) 스님은 금강산 유점사에 머무르며 전국적으로 작품을 남겼다. 축연 스님의 작품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에 등장하는 불보살들은 얼굴의 이목구비와 주름, 몸의 양감 표현에 서양화의 음영법을 사용해 입체감을 표현했다.

19~20세기 화승 조성 불화 눈길
축연, 서양화 음영법 표현해 독특
근대기 화승 초본들도 확인 가능
이건희 콜렉션 근대불화 첫 공개

또한, 축연 스님은 〈쌍월당 대선사 초상〉에서 그림 안의 족자에 자신의 당호 '혜산(蕙山)'을 적어 넣었다. 일반 문인화가처럼 개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전통적인 불화 제작 전통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는 축연 스님이 승려 장인이면서도 스스로를 예술 창작 주체로서 인식하고 개성을 표현한 모습이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축연 스님이 조성한 불화로 19~20세기 무렵 조성됐다. 불보살들의 이목구비와 주름, 몸의 양감에 서양화의 음영법이 활용됐다.



근대불화 〈제석천〉 천여 스님이 1843년 조성했다. 이건희 회장 콜렉션으로 처음 소개된다.

이 전시에서는 근대 화승들의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초본이 함께 전시된다. 〈인물 밑그림〉은 마곡사파 화승 금호 약효(錦湖若效, ?~1928) 스님의 작품으로, 화면 위쪽에 "약효가 초를 내다"라고 적혀 있다. 불화 초본을 제작할 때 바탕천을 위에 덮고 베껴 그릴 수 있도록 필선을 또렷하게 표현하는 것에 비해 이 그림은 가는 붓으로 자유롭게 그린 필선을 보여, 일상적인 연습이나 제자에게 그려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꼼꼼히 그린 초본도 함께 선보인다. 〈지옥을 다스리는 지장보살 밑그림〉은 서울 경국사에서 60여 년간 머무르며 불상과 불화를 조성한 보경 보현(寶鏡普賢, 1890~1979)의 작품이다. 이 초본은 세부를 그린 후 각 부분에 '백(白)', '황(黃)', '진홍' 등 어떤 색을 칠할 것인지 자세히 적어 넣어, 이후의 작업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1917년에 조성된 〈지장암 자수지장보살도〉와 화면 크기 및 구성이 동일해 자수 불화의 초본으로 그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중 근대 불교회화 여러 점이 최초로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제석천〉은 19세기를 대표하는 화승 천여(天如, 1794~1878) 스님이 1843년에 그린 것이다.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관음보살〉은 파도 속에서 솟아오른 바위에 편안히 앉아 있는 수월관음의 모습으로, 1854년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한 도순(道詢, 19세기 중반 활동) 스님이 그렸다.

〈불화 밑그림〉은 작은 화면에 먹으로 동자·옥졸·판관 등 명부 관련 불화에 등장하는 하위 권속의 모습을 빼곡하게 그렸다. 시왕도나 지장보살도, 감로도 등을 그리기 위한 습작으로 보이며, 근대 불화승의 일상적인 작업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사회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불교와 불교미술을 둘러싼 위상과 환경도 변화하는 시기였다. 근대의 불교회화는 조선시대의 불교미술 조성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면서 "오늘날의 불교미술로 계승되기까지 시도됐던 다양한 노력의 모습들을 만나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 사찰 금강문·천왕문 '보물' 된다

문화재청 2월 16일 지정 예고
통도사 · 직지사 등 8곳 山門
"역사 · 예술적 가치 높아" 평가

사찰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첫 산문(山門)은 일주문(一柱門)이다. 이를 넘어서면 금강문(金剛門)과 천왕문(天王門)을 만날 수 있는데, 이는 조선시대 사찰의 삼문(三門) 체계가 성립되면서 나타나는 사찰 진입부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건축물이다.

불교와 사찰의 수호신장들을 모신 금강문과 천왕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2월 19일 밝혔다.

지정예고된 '완주 송광사 금강문'은 17세기에 건립돼 보물로 지정된 대웅전 및 종루의 형태와 유사한 점이 건립



완주 송광사 금강문.

연대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보은 법주사 천왕문'은 정유재란 이후 법주사 재건이 이뤄지던 17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천왕문 기둥과 사천왕상에 대한 연륜연대 분석 결과를 통해 1620년경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 통도사 천왕문'은 1713년(숙종39)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그 다음 해인 1714년에 중건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사찰 산문(山門) 중 건립시기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사례다.

'순천 송광사 사천왕문'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건물로 자연친화적인 위치에 건립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한다. '구례 화엄사 천왕문'은 고려 후기에 처음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임진왜란 이후 소실됐던 것을 벽암 각성(碧巖覺性)이 1636년(인조14)에 중창했다.

'영광 불갑사 천왕문'(전라남도 영광군)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기록을 통해 1725년(영조1)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공포(栱包)는 17세기 이후 서남해안 지역 사찰 건물의 건축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장식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

'포항 보경사 천왕문'은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으나, 1679년(숙종5) 중창한 후, 1761~1767년(영조37~43)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확인된다. 17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진 사찰 천왕문의 조성과 시기적 변화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김천 직지사 천왕문'은 1596년(선조 29) 임진왜란 때 왜적의 방화로 절의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천불전, 자하문과 함께 피해를 입지 않고 유지돼 오다 1665년(현종6)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하기 이전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완주 송광사 금강문' 등 8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조선 불상, 고려 청동북 등 보물 지정

문화재청, 2월 21일 지정 공고
영광 불갑사 일원 명승 지정돼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목조시왕상과 고려시대 청동북, 고려·조선 불교 전적들이 대거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 '천수원'명 청동북,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등 7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월 21일 밝혔다.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 및 목조시왕상 일괄은 승일, 성조 등의 조각승들이 1665년(조선 현종6) 완성해 송림사 명부전에 봉안한 것이다.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천수원'명 청동북은 1162년(고려 의종16)에 제작된 청동북으로, 몸체 측면에 제작 시기, 무게, 사찰명, 주관 승려가 적힌 글씨가 있어 12세기 중엽의 중요한 편년 자료로 평가된다.

〈금강반야경소론찬요조현록〉은 기존에 보물로 지정된 판본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된 판본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유일본으로 자료적 희소성과 가치도 뛰어나다.

〈예념미타도량참법〉권6~10 '선광사 소장본'은 끝부분에 초주갑인자(初鑄甲寅字)로 인출된 등곡 학조(燈谷學祖)의 '발문(跋文)'이 수록돼 있으며, '총명사 소장본'은 김수온(金守溫)의 '발문'이 수록됐다.

또한 문화재청은 '영광 불갑사 산지 일원'을 국가지정유산 명승으로 2월 19일 지정했다.

신중일 기자

김오곤 한의사가 강력 추천

★ 일반황토보다 187배가 넘는 고농축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 게르마늄 황토알파토(사계절용) ★



그린에너지 전속모델 한의사 김오곤

온열요법 건강매트 · 방석

36.5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을 높여주고 면역력이 올라가면 자연치유력을 강화시킵니다.

2만개의 게르마늄황토알파토 볼이 촘촘히 박혀있어

체온을 올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며 독소를 배출함으로써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림프구 계통인 세포, NK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력은 5~10배 강해져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노화방지, 신진대사 촉진,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큰 효과를 보입니다.

매트 99만원(SS사이즈 : 1100×2000)



게르마늄황토알파토 건강매트 · 방석의 효능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역력강화
- 근육통완화,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 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 혈액순환촉진, 신진대사 원활
- 통증완화(신경통, 관절통, 견통예방)
- 숙면(불면증, 피로회복, 좌골신경통) 효과
- 생체의혈류개선(고혈압, 저혈압)
- 암예방(온열에 의한 악성종양 사멸) 효과



방석 35만원

황토알파토 건강베개

-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 경추척추통증개선
- 코골이 개선
- 목디스크 효과
- 지압효과
- 거북목 통증완화

베개를 선택할 때 보통 6~9cm 높이의 베개가 가장 적당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가 위나 아래로 휘지 않고 등뼈와 일직선으로 유지되어야만 목에 무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 남자의 경우 바로 누운 자세에서 7.9cm, 옆으로 누웠을 때는 9.5cm의 높이가 적당합니다. 여자는 바로 누웠을 때 6.3cm, 옆으로 누웠을 때 7.3cm가 적당합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몸이 불편하고 일자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베개를 벨 때는 머리를 받치기보다는 목을 받친다는 느낌으로 베는 것이 좋습니다. 목의 근육이 이완돼 편안한 느낌을 주며 목뼈가 정상적인 C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베개 20만원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4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21~2/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너는이미기적이다:틱낫한스님의365일잠언모음집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2	성철스님의짧지만큰가르침	원택	장경각
3	어싱:땅과의접촉이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5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6	미얀마아라한의수행:9위빠사나선사들의법문모음	강종미 편역	해장각
7	비움과금강경:근본불교와대승에서의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8	꾼달리니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9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10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지경 편집	운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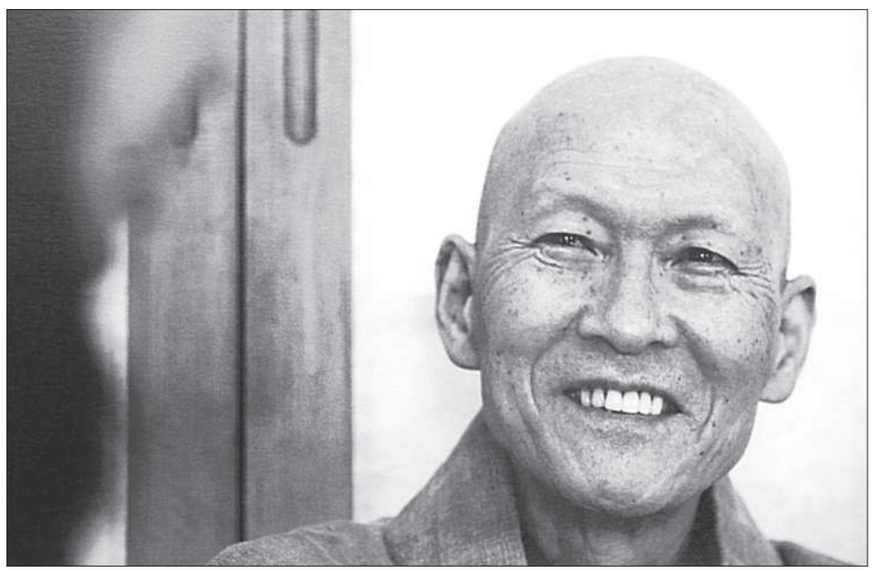
책세상

법정 스님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
정찬주 지음
여백출판사
1만8000원

법정 스님 입적 14주기 맞아
직접 경험한 스님 일화 정리
스님의 품격 · 사상 잘 담아내
법정 스님 엽서 · 편지 · 유묵도



법정 스님이 〈현대불교〉와 인터뷰하던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91년 6월 16일 단옷날, 마흔의 정찬주가 무염(無染)이라는 법명을 받고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난 날. 샘터사 편집자로서 법정 스님과 앞서 6년간 교류해온 정찬주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자 찾아가 당돌하게 말했다.

"스님, 법명을 주시되 인생의 좌우명 같은 법명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런 정찬주의 태도에도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나이를 묻더니 하룻밤이 지나 계첩을 수여했다.

"저잣거리에 살면서도 물들지 말라는 뜻에서 무염이란 법명을 지어보았소."

욕심 때문에 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샛길로 빠지거나 허물을 지을 때, 신호등 같은 계를 생각해 발걸음을 멈추라는 법문까지. 법정 스님과 불일암 계단을 내려오던 정찬주는 이날을 '불자로서 B.C시대에서 A.D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선 느낌'이라고 술회한다.

지금은 원로소설가인 정찬주는 법정 스님의 '아난'이다. 붓다가 입멸할 때까지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가장 많은 설법을 들은 다문제일(多聞第一) 같은 존재. 붓다의 나이 50세쯤 시자로 추천돼 30년간 붓다를 모신 아난처럼, 정찬주 역시 1980년대 법정 스님을 만나 2010년 3월 스님의 입적까지 곁을 지켰다.

이처럼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은 재가제자인 정찬주 소설가가 법정 스님의 14주기를 맞아 펴내는 산문집이다. 지난 2020년 스님의 10주기에 〈법정스님 인생응원가〉를 펴낸 그가 올해 다시 법정 스님 그리는 이유는 명확하다. 누군가 지친 영혼에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듯 노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저자는 "종교계마저도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오늘, 법정 스님의 가르침 한 줄이 신산한 삶으로 힘겨운 독자들에게 위로와 응원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한다.

〈마지막 스승 법정스님〉의 1부는 저자가 소장하고 있는 스님의 엽서와 편지, 유묵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유묵들이 갖는 사연을 사실대로 서술하면서 법정 스님의 정신과 품격, 사상을 진솔하게 엿볼 수 있다. 법정 스님과의 첫 만남, 법명을 받던 날의 기억, 저자의 산방인 이불재로 '가정방문'까지 왔던 스님의 애틋함이 여운을 남긴다.

2부 1장 '불일암은 법정스님이다'는 불일암 공간에 저장된 저자의 추억과 사연들이다. 불일암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가장 치열하게 정진한 곳이고, 물소리와 바람소리 같은 자연주의적 칼럼을 활발하게 발표해 어둔 세상을 밝힌 곳이기도 하다. 2부 2장 '스님의 가정방문'은 저자가 듣고 본 법정 스님의 말씀과 당시 상황을 복기한 글로 채웠다. 법정의 아난 정찬주의 여시아문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법정 스님이 학생들 자존심을 세워주려 학비를 클래식음악카페에 맡겨 찾아가도록 한 일, '베푼다'는 말보다 '나눈다'는 말을 즐겨 쓰던 스님, 스님이 권한 세 권의 책 등 소소하고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향훈으로 다가온다.

책에 담긴 내용 중 일부는 앞서 여러 지면을 통해 알려진 것도 있다. 저자는 이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두세 번 반복된 사연이라 하더라도 읽을 때마다 지친 영혼을 두드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

▲저자 **정찬주**는?

195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국어교사로 잠시 교단에 섰다. 월간 〈불교사상〉에서 편집자의 삶을 시작해 십수년간 샘터사 편집자로 법정 스님 책을 만들면서 스님의 각별한 재가제자가 됐다.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작가가 됐다. 법정 스님에게서 받은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마음에 품고, 전남 화순 계당산 산자락에 산방 이불재(耳佛齋)를 지어 2002년부터 그곳에서 텃밭을 일구며 자연에 둘러싸여 집필에만 전념 중이다.

스님이 그려낸 천진불 동심



어린왕자의 꿈
묵암 지선 지음
기획출판 반딧불
1만5000원

'손 끝에 닿진 않지만/ 해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우주의 신기한 섭리// 그중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푸른 별 지구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시사철 태양의 주변을/ 돌고 도는 고마운 별// 우리의 생명 별 지구가/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찌르륵! 찌르륵!/ 풀벌레 소리 들으며/ 나는 소중한 지구별을 지키는/ 어린왕자가 됩니다.' —동시 '어린왕자의 꿈' 중

달을 머금은 산이라는 뜻의 함월산(含月山)의 명찰 백양사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묵암 지선 스님〈사진〉이 지구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애틋하다. 천문(天文)을 보며 연기로 이뤄진 자연의 섭리를 알며, 그렇기에 뭇 생명들이 행복하길 기도한다. 스님은 이내 지구별을 지키는 수행자인 어린왕자가 된다.

울산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이 첫 동시집 〈어린왕자의 꿈〉을 선보였다. 총 54편의 동시가 담긴 시집은 스님이 백양사로 오기 전 30여 년을 주석한 충북 괴산 금봉산 자락에 작은 절(마하금강사)에서 수행한 시간과 산사를 오가며 보고 느낀 대로 쓴 동시들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는 시인의 어릴 적 로망이다. 시인의 로망은 동시 '연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어둡고 탁한 뻘 속에서 피어나 하양, 분홍의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연꽃을 그윽이 바라보며 시인은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연꽃에게서 인내와 소생(蘇生)의 힘을 얻고 정화(淨化)의 기운도 얻는다.

초평 김용섭 한국아동문학회 명예회장은 "지선 스님의 동시에 나타나는 동자승과 어린왕자는 시인의 어릴 적 모습으로, 스님의 로망은 동자승과 어린왕자를 통해 투영된다"면서 "동심은 천심(天心)이요 인간의 근원지심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동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문학적 성취로 지선 스님은 한국아동문학회가 시상하는 '제1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운암 김성숙 불교 행적, 만화로 만나다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
원작 유응오/ 정수일 글 · 그림
시간여행/ 1만5000원

독립운동가 운암 김성숙 선생의 불교 행적을 만화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사)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민성진)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유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 운암 김성숙 선생의 사상적 기초가 된 불교입문과 불교행적을 정리한 웹툰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이 만화책으로 발간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번 만화책은 〈우단사련〉에 이은 두 번째 만화책으로 운암 김성숙 선생이 풍곡 신원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뒤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과정까지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독립운동의 횃불 봉선사와 태허 스님〉은 본지 필진인 유응오 소설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정수일 만화가가 글·그림을, 정태영 작가가 컬러를 맡아 제작했다. 박제된 독립운동가 이야기보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대중에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작가의 창작을 가미한 스토리텔링이 눈길을 끈다. 독립운동의 산실 봉선사의 대중스님들과 운암 김성숙(태허 스님)과의 관계를 조명해 불교의 사상이 독립운동에 끼친 영향도 흥미롭게 접근하고 있다.

운암 김성숙 선생은 용문사에서 출가하고 봉선사에서 수행했으며, 법명은 '태허'였다. 1919년 3.1운동에 참여 옥고를 치른 후 월초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1923년 북경으로 건너가 중국 내 한국 학생들의 정치적 사상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 신중일 기자

흔들림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
나보다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남긴 글, 한시(漢詩)에서 발견하다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학에 정통한 원철 스님이
한시에서 길어올린 '언제든 나의 중심을 잡아줄 삶의 지혜'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원철 지음
264쪽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초기경전 분야의 권위자 일아 스님이 가려뽑은
삶의 모든 순간을 평안과 행복으로 만들어주는
붓다의 말씀
그림과 함께 읽는 인류의 고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핵심 구절
그림과 함께 읽는 감명 깊은 초기경전
『담마빠다』, 『숫따니빠따』, 니까야의 주요 구절을 가려뽑았다. 이와 함께, 더 많은 대중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구절을 접할 수 있도록 누구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접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아 지음
320쪽
22,000원

조계종통 정립한 '금명보정 선사' 조명하다



다송자 금명보정
현봉 지음
조계종출판사
2만7000원

금명 보정 선사 재조명 나섰던
조계총림 방장 현봉 스님 지어
생애, 업적, 차시까지 총망라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산 송광사는 한국불교의 위대한 선지식을 가장 많이 배출한 승보사찰이다. 한반도의 험난한 역사 속에서 송광사 역시 폐허가 될 위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한 혼란기에 송광사는 물론 조계종의 종통을 혼신을 다해 지킨 선지식이 바로 다송자(茶松子) 금명 보정(錦溟寶鼎, 1861~1930) 선사다.

하지만 현대의 불자들에게 '다송자'라는 호도 '금명 보정(錦溟寶鼎)'이라는 법호도 낯설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송광사의 옛 자료를 수집하며 금명 보정 선사를 알게 됐고, 송광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2001년 송광사에서 '다송자 금명보정의 생애와 사상' 이라는 이름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역사 속에 묻힌 금명 보정 선사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이를 계기로 금명 보정 선사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 것이다.

현봉 스님은 2015년에 다시 한 번 송광사에서 '다송자를 중심으로 한 선사상(禪思想)과 송광사 다풍(茶風)'에 대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하지만 금명 보정 스님의 업적과 행적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여겨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현재 다송자의 저술은 〈한국불교전서 제12책〉 '보유편'에 방대한 분량이 수록돼 있지만 한문인데다 한글로 번역되지 않아 일반인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지난 2020년은 금명 보정 선사 입적 90주기였다. 이때 송광사 부도원에 '금명보정탑(錦溟寶鼎塔)'을 건립했다. 현봉 스님은 이후로도 금명 보정 선사에 관한 자료를 보정해 드디어 이 책 〈다송자 금명보정〉을 세상에 내놓게 됐다.

이 책에서 현봉 스님은 다송자의 문집 가운데 일부 행적을 뽑아 행장을 중심으로 업적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송자의 시고(詩稿) 1000여 편 가운데 차시(茶詩) 70여 편과 문고(文藁) 가운데 기문(記文) 몇 편을 골라 번역을 함께 실었다.

행장을 따라가다 보면 송광사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크고 작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또한 한반도의 당시 시대상도 알 수 있어 귀중한 사료 역할을 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송광사성보박물관의 도움을 받아 남아 있는 사진 자료들도 이 책에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금명 보정 선사 진영.

조계종풍을 재정립했다고 평가받는 다송자 금명 보정 선사는 어떤 인물일까. 금명 보정 선사는 송광사에 출가해 주석한 대종사로 법휘(法諱)는 보정(寶鼎)이며, 법호(法號)는 금명(錦溟)이다. 스스로 호를 다송자(茶松子)라고 했다.

금명 보정 스님이 송광사를 지키던 때는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혼란과 핍박의 시대였다. 조정의 관리는 승려를 노비 부리듯 하였고, 사찰은 종종 약탈의 대상이었다. 언제 목숨을 잃어도 놀랍지 않은 시대였다. 금명 보정 선사가 남긴 당시 기록에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두 벗이 찾아와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말하기를 "이런 난세에 보신하는 것은 재야에 숨는 것이 좋으니 함께 세속으로 나가도록 하자"고 하자, 대꾸하기를 "두 형들은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가? 나는 이미 입산하여 불자(佛子)가 되었으니 맹세코 산을 내려가지 않을 것이오. 차라리 저런 산적들에게 해를 당할지언정 불자의 이름을 바꾸지 않으리라. 그대들이나 바라는 대로 환속하여 스스로 도생하시기 바라오."

당시 일제는 일본의 조동종을 한국불교에 들여와 원종이라는 것을 만들어 사찰을 통제하려 했다. 뜻있는 선사들은 이러한 만행에 저항하며 임제종 종무원을 송광사에 설립하였다. 이후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금명 보정 선사를 비롯한 선지식들은 임제종풍에 입각해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금명 보정 선사 역시 시대에 꺾이지 않고 평생 동안 송광사를 지켜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칫 사라질 뻔한 송광사의 모든 자료들을 한평생 수집하고 고증하고 정리해냈다. 오늘의 송광사가 승보종찰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금명 보정 선사가 그 틀을 세웠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송광사의 역사를 남기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불교와 나아가 한국문화와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를 남긴 업적이다.

계맥과 다풍을 이어갔던 것도 금명 보정 선사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동국의 칠불계맥은 대은으로부터 금담에게 전해지고, 다시 초의와 범해로 전해졌다. 범해는 다시 송광사의 금명과 율암, 통도사의 선곡, 해인사의 제산과 취은 등 여러 율사들에게 전해졌다. 서상수계로 되살린 동국계맥을 중흥시켜 오늘의 한국불교가 있게 되었던 것이다. 금명 보정 선사는 이러한 초의와 범해로 이어지는 계맥과 더불어 그들의 선, 교, 율을 이어받고 대변했으며 나아가 그들의 다풍(茶風)도 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범해로부터 많은 감화를 받았고, 초의의 〈동다송〉과 〈다신전〉 등을 읽으며 대흥사의 다풍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스스로 자호를 다송자(茶松子), '차를 즐기는 송광사 스님'이라고 한 것도 이 같은 자긍심이 담겨 있다. 책에 수록된 시를 통해 우리는 금명 보정 선사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접할 수 있다.



한시서 길어 올린 혼자라도 걱정 않는 삶



아주 오래된 시에서 찾아낸 삶의 해답
원철 스님 글 /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흔히 '한시는 어렵다'고 말한다. 요즘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한자로 기록된 것이 첫 번째요, 한정된 글자 안에 많은 뜻을 담고 있기에 그 의미를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한시를 오롯이 감상하기보다는 분석하는 법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의 교육도 여기에 한몫할 것이다. 하지만 한시는 그리 어려운 무언가가 아니다. 옛날의 사람과 오늘의 사람은 살아가는 시대가 다를 뿐, 결국 한 생을 꾸려나가는 한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는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시와 다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에는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다. 그건 한시를 쓴 이들이 문인이나 학자, 승려 등 당대의 지식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작품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만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언제든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는, 그래서 '고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한시다.

이 책은 불교계 대표 문장가이자 한문 고전의 대중화에도 힘쓰고 있는 원철 스님이 옛 문헌에서 가려뽑은 한시의 명구만을 옮기고, 이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알려주는 것은 '한시'를 분석하고 번역하는 방법이 아니다. 한시는 소재일 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과 우리들의 삶,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말한다. 이를 통해 옛사람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거울 삼아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59편의 글은 각기 다른 한시 구절을 주요 소재로 삼았다. 그 가운데에는 마음이 철렁하다 싶을 정도로 내 생각을 깨부수어 주는 구절도 있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게 하는 구절, 지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구절도 있다. 여기에 저자 원철 스님은 각종 문헌과 경전을 참고하여 한시만으로는 알 수 없는 '뒷이야기'를 달고, 스님 나름의 의미를 더했다.

중국 야보 도천 선사가 〈금강경〉 해설로 달아 유명해진 구절인 "빈 배에 가득히 허공의 밝은 달만 싣고 돌아온다(滿船空載月明歸)"의 원작자가 뱃사공 노릇을 하며 수행에 정진했던 화정 덕성 선사임을 알려주면서 원 저자의 공덕에 못지 않은 대중화의 공로를 치하하는가 하면, 조선시대 최한경이 첫사랑에 대해 읊은 "꽃밭에 앉아 꽃잎을 쳐다본다. 아름다운 색깔은 어디에서 왔을까?(坐中花園 瞻彼夭葉 兮兮美色 云何來矣)"라는 구절을 보고 '아름다움'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런가 하면 다산 정약용이 자신보다 먼저 입적한 10살 어린 스님 친구를 위해 쓴 탑명(塔銘)을 보며 두 사람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과 이로부터 시작된 불가(佛家)와 유가(儒家)의 교류를 되짚어보기도 하고, 계곡 물과 구름, 꽃향기와 종소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노래한 백거이의 시를 통해서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관계성에 대해 사유한다.

이렇듯 저자 원철 스님은 한시 속에 숨겨진 가치를 에둘러 짚어준다. 흔한 힐링이나 위로, 어떤 충고도 쉽게 하지 않는 스님은 우리 스스로 그 답을 알아낼 수 있도록 넌지시 알려준다. 이를 통해 세상과 떨어져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임은호 기자

불교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대원불교학술총서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면 불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문일수 지음 / 360쪽 / 25,000원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
티베트인이 겪어온 비극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비폭력, 자비, 평화의 신념을 지켜온 달라이 라마의 정치철학과 사상을 담은 대표적인 100편의 글!
수바쉬 C. 카샵 편집, 허우성 · 허주형 옮김 / 876쪽 / 50,000원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지평
전통적인 불교명상과 불교심리학을 현대의 심리학 이론 및 실천과 융합하여 불교심리학의 새로운 전망과 혁신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모리츠 키 편집, 이성동 · 김태수 옮김 / 932쪽 / 55,000원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 권으로 보여주는 한국불교의 역사!
한국불교통사
김경집 지음 / 392쪽 / 20,000원

서양철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인가?
에리히 프롬과 불교
박찬국 지음 / 316쪽 / 20,000원

인류의 위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새로운 실천 방향 제시!
활생문명으로 가는 길
김규칠 지음 / 368쪽 / 25,000원

불교와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유사성과 상호 영감!
스토아철학과 서양불교
패트릭 어셔 지음, 이재석 옮김 / 152쪽 / 12,000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마음(心)과 의식(識)에 대한 통찰!
불교의 무의식
윌리엄 왈드론 지음, 안성두 옮김 / 456쪽 / 23,000원

백운·태고·나옹의 선어록에 대한 문예 미학적 접급!
한국 선어록의 문예 미학
전재강 지음 / 312쪽 / 20,000원

가장 뛰어난 제자 24인의 삶과 수행, 깨달음의 과정을 담다!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
냐나뽀니까 장로 외 지음, 김충현 옮김 / 728쪽 / 40,000원

<근간>
불교 윤리 1, 2 / 다니엘 코조트 외 지음, 이동수 옮김
윤회 / 로저 잭슨 지음, 윤희조 옮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이 과연 부처님의 본뜻이었을까?
비구니 승가 설립의 역사
아날라요 지음, 김철 옮김 / 360쪽 / 20,000원

직접성과 즉각성의 전통적 해석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관점!
새로 보는 선불교
베르나르 포르 지음, 정천구 옮김 / 696쪽 / 45,000원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권 대학의 철학과 교재!
철학으로서의 불교
마크 시더리츠 지음, 강병화 옮김 / 648쪽 / 3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지상백고좌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계율호지, 견성성불로 가는 출발선”

〈戒律護持〉 〈見性成佛〉



태허 무관 대종사는… 1959년 출가해 1964년 향천사에서 보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2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은사는 희섭 스님. 해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무관 스님은 지관 스님 전강제자로서 승가교육에 평생을 매진했다.
해인사승가대학장, 해인사 율원장과 율주, 총무원 총무부장, 중앙종회의원, 법계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전계대화상으로서 불법홍포와 종풍진작에 진력하고 있다.

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의 종찰(宗刹)로 불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국난극복의 염원이 담긴 팔만대장경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엄정한 가풍이 살아 있는 선원(禪院)이 있어서이기도 하며 치열한 공부가 이어지는 강원(講院)이 있어서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율원(律院)이다. 당당하게 총림(叢林)을 지키는 하나의 기둥으로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해인율원이다.

해인율원(海印律院)은 성철 스님과 함께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던 자운 스님의 원력으로 출발했다. 스님이 해인사에 ‘천화율원’을 열어 후학들을 지도했고 1968년에는 자운 스님의 원력을 이어 받은 일타 스님이 해인사 극락전에서 5명의 스님들에게 〈사분율〉을 강의하며 율원의 토대를 닦았다.

마침내 1977년에 일타 스님을 율주로 현대 한국불교 최초의 총림율원인 해인율원을 설립한다. 그 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해인율원에서 계율(戒律)을 연찬했고 전국의 사찰로 나아가 후학들을 키워냈다.

해인율원의 가장 큰 자랑은 자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자포살(自恣布薩)을 현대불교 최초로 발의하고 진행했다는 점이다. 자자포살은 지금도 한국불교 수행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식이다. 자운 스님의 상좌이자 현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이었던 지관 스님이 총무원장을 하면서 종단 주요제도로 확립했다.

선교율(禪敎律)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탱하는 세 개의 축이듯이 해인총림은 율원이 가동되면서 총림으로서 완전체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유독 추웠던 겨울 안거의 해제를 앞두고 해인율원으로 향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가 주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전계대화상은 종단 계단의 설치, 운영, 수계식 등을 관장한다. 또한 당연직 계단위원장 소임을 맡으며 계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계단위원을 위촉한다.

무관 스님은 2020년 12월부터 전계대화상을 맡고 있다. 1차 임기가 끝난 지난해 말 원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다시 전계대화상에 추대돼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스님은 해인총림의 전계사(傳戒師)를 맡고 있기도 하다.

戒와 律, 수행의 근본

오랜만에 들어선 율원은 여전히 꼿꼿했다. 기세등등하던 겨울 추위가 발붙일 생각도 못 할 정도다. 당당하게 서 있는 ‘해인율원(海印律院)’ 현판 양옆으로 일타 스님의 글씨가 춤을 추고 있다.

마승 비구의 위의를 익히고(習馬勝之威儀)
우바리 존자의 궤범을 배운다
(學婆離之軌範)

마승 비구가 누구인가? 위의가 얼마나 단정했으면 사리불과 목건련이 그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귀의했을 정도였다.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 지계제일(持戒第一)로 대중들의 존경을 받았던 수행자다. 해인율원의 가풍과 지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글씨다.

큰 절에 가면 공부할 수 있단 말에
영어사전 들고 입산…3일 만에 출가
탄허, 월운 스님 등에게 경전 배워
자운율사에게 戒學 수학…계맥 이어

“불교공부 기본은 戒定慧 배우는 것
계율로 선정을, 선정은 지혜 이끌어
계율, 수행의 근본이자 부처님의 行”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율원 안쪽으로 더 나아갔다. 율원채인 극락전 주련 글씨를 보며 단단하게 마음을 붙잡는다.

지금 이 몸으로부터 불신에 이르도록
(自從今身至佛身)
굳게 계율을 지켜 범하지 아니하리니
(堅持禁戒不毁犯)
바라옵건데 제불께서 증명하소서
(唯願諸佛作證明)
신명을 버릴지언정 끝내 물러나지 않으리
(寧捨身命終不退)
제가 지난날 지은 죄업들(我昔所造罪惡業)
하나같이 하염없는 탐진치로 말미암았네
(皆由無始貪嗔癡)
종신토록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죄
(終身口意之所生)
모두 제가 지금 다 참회합니다.
(一切我今皆懺悔)

석주 스님이 ‘율장입지게(律藏立志偈)’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 추상같은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며 율원 내 청백당에 위치한 무관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강사이자 대율사인 무관 스님의 방은 정말 말 그대로 ‘발 디딜 틈도 없이’ 책이 가득했다.

“부처님 성도 후 설립된 승가는 계율에 의해 기본이 성립됐습니다. 우바리 존자의 계율 암송으로 율장이 갖추어지고 중국 도선 율사에 의해 ‘사분율’ 중심의 계단과 전계가 이루어져 면면히 이어 온 율종은 1980년 법난 이후 조계종 단일계단을 자운 성우 대율사께서 설립하시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불교는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정혜에서 계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율에 의해서 선정이 생깁니다. 또 선정에 의해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계율은 몸을 단속하고 선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동시에 지혜가 나오도록 합니다. 계율이 수행의 근본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가 양심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율은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제재가 가해집니다.

계율은 계체(戒體), 계법(戒法), 계상(戒相), 계행(戒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계체는 계율의 근본입니다. 계법은 변하지 않는 법을 말하고 계상은 계율의 조목입니다. 계행은 계율을 행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위의(威儀)는 예법에 맞게 위엄이 있는 엄숙한 태도나 몸가짐을 뜻합니다. 수행자들에게 중요한 위의는 계율 자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행의 근본인 계율이 중요한 것입니다. 계율은 부처님의 행입니다. 불행(佛行)이 곧 계율입니다.”

삼배를 올리기 무섭게 무관 스님은 계단의 역사와 계율의 의미, 계율의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노트북을 펼칠 시간도 없이 시작된 말씀에 머리와 손과 발이 허공에서 허둥지둥 정신을 못 차렸다. 손님이 온다고 무관 스님이 미리 내려 보온병에 담아 두었던 따뜻한 차를 마시고 나서야 겨우 흩어졌던 마음을 모아낼 수 있었다.

오대산과 가야산이 만나는 지점

무관 스님의 계율에 대한 관점은 확고했다. 부처님 수행이 계율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 것처럼 사부대중의 정진 역시 확고한 계율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율 경시의 시대’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씀이었다.

13면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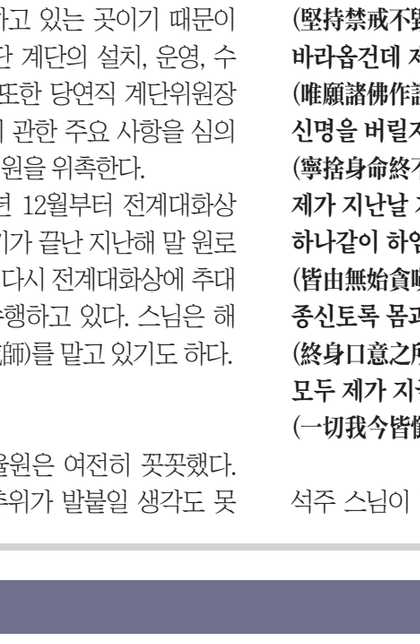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허 무관 대종사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가 된다”

12면에 이어

“지계와 함께 평소 수행 게을리 말고
3가지 장점 말하고 1가지 충고하라”
言事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법

만행 납자에겐 “부처님 성지 순례를”
부처님의 생애 들여다보고 수행 점검
성지서 무엇을 실천할지 다짐해 보길



무관 스님이 정행당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 스님의 불교관, 수행관은 한국 불교의 큰줄기에서 뻗어 나온 것이었다. 스님은 오대산에서 수행자가 됐다. 그리고 가야산에서 수행의 틀을 완성했다.

“저는 5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3살에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상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절에 가면 고등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영어사전 하나 들고 입산을 하게 됐습니다. 1959년 음력 1월 12일에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일주일 뒤에 절에 왔습니다.”

고향 김제에 있는 작은 절로 간 스님은 향학열(向學熱)에 불타올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새벽에 일어나 도량석하고 염불하면서 자연스럽게 절 사람이 됐습니다. 3일 정도 지나 수행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스님들께서 ‘너는 세속공부하러 오지 않았느냐?’고 물으셔요. 그래서 ‘공부가 크게 다르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려 정식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하하.”

스님은 공양주부터 했다. “아무 맛 없는” 밥을 척척(?) 해냈다. 어른스님들의 당부에 따라 8개월만에 금산사로 갔다. 또래의 행자가 30여 명 가량 됐다. 다시 시간이 흘러 예산 향천사를 거쳐 오대산에서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을 다졌다. 감자 서너 개에 쌀과 보리가 몇 알씩 얹혀 있던 밥을 먹는 일이 일상이었지만 오대산에서의 단련시간은 잊을 수 없다.

얼마 뒤 스승 희섭 스님을 따라 화성 용주사로 갔다. 운허 스님과 탄허 스님을 모시고 무비, 성타, 월은, 송원, 주인 스님 등이 역경연수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다. 무관 스님은 원주로서 스님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했다.

3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오대산으로 돌아와 상원사에서 탄허 스님에게 〈서장〉과 〈선요〉를, 그 후 다시 용주사로 가 월운 스님한테 〈능엄경〉을 배웠다.

“한암 스님과 그 상좌 보문 스님, 손상좌이자 저의 은사인 희섭 스님께 오대산의 가풍을 배웠습니다. 사숙이신 탄허 스님께도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한암 큰스님과 보문 노스님을 보면서 수행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은사 희섭 스님을 모시면서도 철저한 자기수행과 대중살림의 원칙 등을 면밀히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내전(內典)을 마치기 위해 1971년 해인강원에 입학했다. 2년간 치열하게 공부한 뒤 강원을 졸업했고 지관 스님의 추천으로 해인강원 강사가 된 뒤에는 현대화된 강의법을 알아보고자 정규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공부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다.

본격적인 공부의 과정에서 만난 어른들이 바로 자운 스님과 지관 스님이다.

“종단의 대표적인 율사인 자운 큰스님은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이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처럼 성불해 중생제도를 하지 못함을 창피해하면서 항상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부끄러운 줄 아는 참괴의 도리로 사셨어요. 큰스님은 여름에도 가사장삼을 수하고 3년간 국립도서관을 다니면서 사분율을 중심으로 오분율까지 직접 옮겨 쓰시면서 3년 동안 연구에 진력했습니다. 저 역시 출가자의 초심을 지켜주는 것이 계율이라는 생각이 들어 큰스님을 모시고 율을 공부했습니다. 이 인연으로 자운-지관 스님으로 이어지는 계맥(戒脈)을 잇게 됐습니다.

자운 큰스님의 제자인 지관 스님은 말이 필요 없는 대강사이십니다. 1970년대 해인사에서 스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스님은 하루 두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경전을 비롯한 각종 내외전을 보시다가 밤 12시가 되면 독성각에서 108배를 하시고 잠깐 방에서 주무신 뒤 새벽 3시 예불에 나오셨습니다. 그전에도 그랬고 총무원장 소임을 보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가산불교대사림〉입니다. 스님의 ‘문자사리’가 곧 완성됩니다. 스님의 강맥(講脈)을 이은 저로서도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에는 오대산의 행(行)과 가야산의 향(香)이 묻어났다.

부처님의 생애가 중요한 이유

스님은 말길을 다시 계율로 돌렸다.

“법(法)은 삼수 변에 갈 거자로 이뤄져 있습니다.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입니다. 법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고정된 상태를 삼매라고 합니다. 수능엄삼매, 법화삼매, 해인삼매, 원각삼매 등 어떤 경전에든지 삼매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삼매는 삼매입니다.

사람들의 집착을 불교의 삼매로 전환시키는 것이 수행이고 계율입니다. 여기서 법은 시작됩니다. 탐욕을 떠나게 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욕존(離欲尊)이라고 하는데 지혜와 자비를 말합니다. 이것을 갖추기 전까지 보살들이 수행을 합니다. 이 수행 역시 계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율을 잘 실천해야 마음안정이 이뤄지고 집중이 생겨 삼매를 증득할 수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것과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출발선이 계율호지(戒律護持)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님은 이어서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의 첫 구절을 설명했다. 자상한 말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었다.

“부초심지인 수원리악우 친근현선 수오계십계등 선지지범개차(夫初心之人 須遠離惡友 親近賢善 受五戒十戒等 善知持犯開遮)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오계나 십계 등을 받아 계를 지켜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계율을 어기고 범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알려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판단한 것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지눌 스님도 계율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소중합니다.”

스님은 계율을 지키는 것과 함께 평소 수행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삼일수심천재보 백년탐물일조진.(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 스님은 “삼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 년의 보배가 되고, 백년 동안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된다”며 수행을 통해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소 불자들에게 법문을 하면 신심과 원력,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언어의 사용에 대한 당부도 해요. 사람관계라는 것이 언어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충고를 할 때는 적어도 장점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를 고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알아듣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작은 수행들이 모여 큰 수행이 완성됩니다.”

지난 주말 긴 동안거가 끝나고 수행자들은 만행을 떠났다. 스님은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자기수행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제하고 나면 보통 만행에 나섭니다. 평소 가보지 못한 곳을 찾기도 하고 국내외 성지도 갑니다. 저는 납자들에게 부처님 성지순례를 권합니다. 성지에서 부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성지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지 다짐해 보기를 바랍니다. 성지에 갈 여력이 안 된다면 부처님 전기를 다시 읽어봐도 좋습니다.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녹야전법상(鹿野轉法相),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을 보기만 해도 신심이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인터뷰는 점심 공양 후에도 한참 동안 이어졌다. 해인율원 문을 나서는데 성철 스님이 율원을 만들 때 내려줬다는 ‘정행당(淨行堂)’ 글씨가 보인다. 어른스님이 솔선해서 보여주는 ‘정행’에 율원 학인스님 10명은 물론 가야산 대중 전체가 청정한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한다.

유철주 / 작가

빛과 자각의 연금술 저자
빛을 직접 몸, 마음, 영혼으로 체험
내안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치유 에너지



삶과 불성을 여는 마스터키를
자각선원에서 찾아보십시오.
자각선원은 가슴을 깨워
내면의 불성에
이르는 길을 제시합니다.

1. 전생치유, 빙의, 우울증, 정신병, 영가장애, 신병, 무속병, 조현병, 원인을 알수없는 특이한 질병
2. 굿과 천도제로 해결 안되는 영적인 문제
3. 수십년 수행해도 진전이 없는 스님, 보살님, 수행자
4. 가슴이 찢어지게 아팟던 한과 집착 정화 수행, 돈에 대한 한, 관계의 한, 권력의 한, 명예의 한, 사랑에 대한 한, 성에 대한 한으로 정신, 마음에 고통받으시는분
5. 가슴에 한과 집착을 내려 놓아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 하고 싶은 분
6. 모든 질병, 고통, 아픔은 감정이 썩어 부정이 물질화된 고통체가 원인, 노여움, 서러움, 부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 가슴 정화 수행
7. 직접 몸, 마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가슴정화, 치유수행
8. 차크라 개발 수행 잠재능력 개발
9. 마음 영혼치유사 제자 양성과정

자각선원
책 구입 및 교육, 치유 문의 010-9242-5259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43번길 22번지 202호 자각선원
책은 알라딘, 예스24, 교보에서 판매중입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❺ 서남산 코스(삼릉~용장골) 〈1〉



▶한줄 요약
경주 남산 답사는 여러 코스가 있는 데 이중 가장 유명한 코스는 서남산 코스다. 코스의 시작은 보물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이다.

숨 돌리면 불상, 눈 돌리면 마애불

정말 우연이었다. 2010년까지 나는 경주 남산이란 곳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조계종스님들은 연수 교육을 종단 차원에서 연도마다 받고 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연초에 교육 일정이 알려지면 이 중에서 한가지 교육을 신청해 받게 된다. 2012년 연수 교육 과목 중 경주 남산의 불교문화 답사가 있었다. 경주도 가보고 남산 주위를 돌아다니면 좋겠다 싶어 신청했다. 경주 남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겠지만,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바람이나 쐬며 돌아다니면 좋겠다'는 마음이 먼저였다.

완전 턱이 빠졌다. 경주 남산을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신비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곳곳마다 부처님이 계셨다. '왜 멋진 불상들이 이 산에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지?' 처음이었다. 어딘가에 불상을 보러 가는 답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던 불교문화유산 햇병아리 연구자(?)에게 경주 남산의 불상은 충격이었다. 어떤 불상을 보기 위해 답사의 길을 하루 코스로 다녀오던 나에게 곳곳마다 즐비한 불상은 신비로움의 세계로 인도하는 손짓이었다. 이날 오전, 오후 하루 코스로 다녀온 답사의 길, 아니 참배의 길은 경주 남산에 빠지게 한 시작점이었다. 기괴하기도 하고 멋스럽기도 한 소나무 숲에 자리 잡은 신라의 왕릉인 삼릉에서 출발해 용장곡을 지나는 서남산 코스와 더불어 칠불암을 지나 내려오는 동남산 코스였다.

먼저 한마디 해야겠다. 경주 남산에는 지명을 쓸 때 곡과 골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곡은 한자이고 골은 한글인데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용장골이기도 하고 용장곡이기도 하다. 이러한 혼용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남산에서 2007년 발견된 열암곡 마애불상이다. 열암곡 마애불상을 찾아가기 위해 인터넷 지도를 보고 주차장을 찾았다. 그런데 열암곡 주차장이 없는 것이다.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았더니 새갓곡 주차장이 열암곡에 올라가는 주차장이었다. '왜 새갓곡이지'하고 찾아봤더니 지금은 새갓곡이라 하기도 하고 예전엔 열암곡이라 불렀다고 한다. 새갓은 산 사이의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또한 새갓곡과 새갓골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물론 열암곡도 열암골이라고 사용한다. 여기에다 새갓과 열암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알 수 있을까? 열암곡 마애불상을 찾아갈 때 새갓 주차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발 경주 남산의 지명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경주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모습. 196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근엄함보다는 친근한 모습의 민불(民佛)이다.

이때의 답사 연수 이후 틈만 나면 경주에 들르고 시간이 나면 남산에 올랐다. 특히나 자주 갔던 길이 서남산 코스다. 이 코스는 경주 남산을 대표하는 코스다. 배동의 삼존불과 왕릉을 지나 오르다 잠시 숨을 돌리면 불상이고 잠시 눈을 돌리면 마애불이다. 특히나 남산을 기단으로 한 삼층석탑의 웅장함과 이에 어울리는 하늘의 경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멋짐을 보여준다. 가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용장골 삼층석탑의 장엄함이다.

경주 남산의 서남산 코스의 첫 시작은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이다. 잘 정돈된 서남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을 찾아가는 길은 쉽지만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불교문화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불상이지만, 일반 참배객이나 소문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알지 못하면 굳이 찾지 않는 불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서남산 주차장에서 오르는 길은 삼존입상이 아닌 삼릉 쪽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알지 못하면 가지 못하는 멋진 불상이 바로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이다.

> 2012년 답사 연수로 경주 남산 접해
> 이후 답사 몰입…'서남산 코스' 추천
> 코스 시작은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 동네 청년 같은 친근한 모습에 미소
> 아미타부처님 극락 정토신앙 담아내

경주에는 안내가 친절하지 못하여 지나는 길 주위에는 있지만 찾지 못하는 불상과 불적, 유적들이 꽤 많다. 매번 경주를 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야기가 있는 답사 길이 없다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특히나 경주 남산의 불적은 가이드가 잘 되어 있다면 의미가 깊은 참배의 길이 될 것인데 말이다.

이글을 보는 모든 분들께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에 꼭 가서 참배하기를 권한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은 7세기 중반 그러니까 600년대 중반 조성된 불상이다. 우리나라 불상 중 바위에 조성되는 시초의 불상이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얼굴을 보면 조선시대 불보살상처럼 근엄함과는 거리가 있는 마음씨 좋은 청년의 모습이다. 그저 가볍게 삼배만 해도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고 모든 걱정거리 다 없애줄 것 같은 불보살님이다. 본존불은 손의 모습이 오른손은 손바닥을 위로한 시무외인과 왼손바닥을 밑으로 한 여원인을 하고 있다. 시무외인은 부처님께서 걱정거리를 없애주겠다는 수인이고 여원인은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수인이다. 나는 찾아가면 삼배를 마치고 주변을 한참 동안 어슬렁거리며 불보살님의 여유로움과 입가의 웃음을 마음과 얼굴에 새겨놓는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중앙의 본존불상이 높이 2m73㎝이고 좌협시보살은 2m35㎝, 우협시보살은 2m32㎝이다. 불상은 양감으로 조성되어 전체적인 모습에서 조형성이 풍부하다. 머리가 몸에 비해 유난히 큰 점은 경주 남산에 있는 불상의 특징을 보여준다. 경주 남산의 불상의 머리가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경주 남산 불상이 경주 남산 불상인 이유다.

경주 남산의 부처님은 높은 곳에 조성됐다. 그러므로 참배하는 신자들이 밑에서 위를 보면서 참배를 하게 된다. 조선시대의 불상은 전각에 조성되며, 법당에 들어가 바로 앞 거의 정면에서 부처님을 참배한다. 눈앞에서 참배하고 바라보기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 그러나 경주 남산의 불상은 법당이 불상보다 더 멀리, 더 아래에서 바라본다. 그렇기에 머리가 커야 균형감이 맞는다. 즉 야외 남산에서 바라보는 신자의 시선에 맞춰서 불상을 조성한 것이다. 갈 때마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지금의 자리보다 약 1m 이상 좀 더 높은 곳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좌협시보살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의 보살이고, 신자가 바라보면 오른쪽이다. 배동의 좌협시보살은 정병을 들고 있다. 정병은 삶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생명의 물인 감로수를 뿌려주는 관세음보살의 상징이다. 그래서 정병을 들고 있는 좌협시보살은 관세음보살로 추정된다. 추정을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이마에 아미타불이 새겨져 있다면 100% 관세음보살이 되는데 명확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혹시나 다른 보살님께서 정병을 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협시보살은 두광에 꽃문양과 가슴과 다리 밑으로 굵은 보석을 두르고 있다. 정병을 들고 있는 좌협시보살을 통해 본존불은 아미타 부처님이고 좌우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토신앙에는 미래에 오실 미륵불이 주인인 미륵정토 신앙과 아미타불이 주인인 극락정토 신앙이 있다.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은 아미타불의 극락정토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삼존입상은 남산에 흩어져 있었는데 1923년 지금의 자리에 옮긴 것이다. 이후 어느 때 전각을 세워서 보호한다고는 했지만, 현재는 불상에 곰팡이 등 습기에 의한 훼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주 남산의 화강암으로 조성된 불상은 햇빛과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한다. 화강암은 햇빛이 차단될 때 습기에 의한 훼손이 일어난다. 그렇기에 경주 남산의 불상은 자연에 노출시켜 남산의 햇빛과 바람, 남산이라는 자연환경으로 보존시키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법일 것이다.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3호 | 15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 010-5270-826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범음·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 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서울, 경기 의식 기준)
1. 사물 다루는 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청(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제,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상주권공, 시식
3. 각종 바라작법(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개 강 일 : 2024년 03월 06일(수) 오후 2시
1.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2. 수 업 료 : 매월 10만원(교재비 별도)
3. 장 소 : 경북동부교구 종무원 설법전 (경주시 강동면 모서별봉길 52-33)
4. 접수 연락처 : 054-762-5888 FAX : 054-762-5889
5. 접수기간 : 상시모집(전화접수가능)
6. 자 격 : 종단, 승속 관계없이 가능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동부교구 종무원장 관성 지공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나를 닦는 백팔배(백팔대참회문)

The Sound of Life

생명의 소리 CD

특가 12,000원

'절이란 참으로 진지하게 나를 닦는 방법입니다!'

"모든 생명을 지극히 내안에 모시고 살림의 장을 확산해 나가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 108배를 올립니다"



1. 절을 하는 마음 낭송 (01:17)
2. 나를 닦는 108배 낭송과 음악 (37:39)
3. 명상음악 "영혼의 피리소리" (05:40)

연주 – 김영동 (대금, 단소, 훈)
삽입곡 – 대금독주곡(즉흥연주)
단소독주곡(즉흥연주)
영가1 – 자연의 소리
영가2 – 자연의 소리
수제천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영남범패학인모집

본 원에서는 영남범패의 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8기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 아 래 -

- 개강일시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 달전사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 778)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6시
- 교육기간 :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 1. 사십구재의식 이론 및 실기
  2. 작법무(바라무·착복무)
  3. 수륙재의식(매주 화요일 참석가능)
- 수강자격 : 삭발염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 강 료 :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 비 물 : 필기도구 및 녹음기
- 강 사 : 원명 (불교의례전공)
- 문의전화 : 010-3867-8419
- 참 고 : 인터넷과 유튜브에서 '달전사'를 검색해보세요.

사)대한불교불음원
원장 원 명 합장

PREMIUM 싸이렌 SAIREN
since 1996 DONGWHA INDUSTRIAL 동화특수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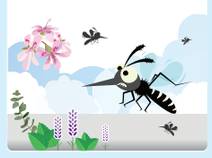
유해 조류, 해충 및 동물 기피제

제품상담/시공문의 동화특수산업(주) 조류방제사업부
031-451-6232 / 010-3747-2111

조류 기피제 구조물용
건축물 등에 피해를 주는 조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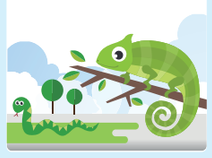
모기·해충 기피제
천연 고급향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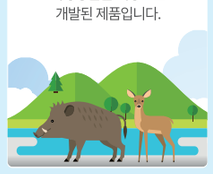
쥐 기피제
쥐를 해치지 않는 친환경 성분들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파충류 기피제
뱀, 도마뱀 등 파충류를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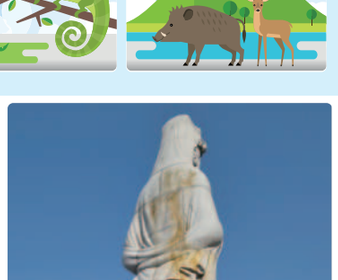
멧돼지 기피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유해 조류(새)에 의한 피해 예방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0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3호 | 16 | 전면광고

너그럽게 살아라.
남에게 손해를 입히지 말고
이익을 얻으면 대중과 함께 나눠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유행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건물 : 법당 60평, 외전각 3채
- 주변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35억
- 경기분당포교원
- 8층 건물에 8층
- 128평에 전용80평
- 역세권, ev. 주차가, 옥상사용
- 매가 : 15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대형 천년사찰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안내

-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318-2/318-21번지 임야 37번지, 전답 332, 333번지
- 2층 건물·임야·전답 총 2445평 매매
- 건물 임대 가능
  1층 45평(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겸 화장실
  2층 삼존불 산신각
-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만원
  즉시 입주 가능

010-3927-5741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 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 중 1층 요사 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 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 법회 가능
- 건강상 시가이하로 7억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사 찰 안 내

종교종단 연수원 기도원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원동조교로 453
- 대지 : 임야 2000평 중 대지 400평
  대웅전, 산신각, 기도처, 요사채, 숙소
  2차선 도로접 버스주차장 200평 포함
  향후 재개발 가능 임야 다수
- 스님 고령화로 매매 원함
- 8억 5천 (조정가능)

010-2415-262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백평, 임야 : 3천 6백평
- 건물 : 대웅전 55평, 공양실 35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8억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약 50평
- 건물 : 3동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 방3개, CCTV 4개
- 가액 : 6천
- 부동산 전화 사절
- 비구니 스님환영

010-7506-860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 5천만원

010-7289-005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 바닷가
- 평수 : 70평 (법당 · 종무소 · 2층요사채 · 창고방 등)
- 가액은 적절히 협의 가능
- 60년된 사찰로 건강상 매도함

010-6309-9944

사찰(급)안내

-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 임 야 : 2,000평
-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명상원 최적지 안내

- 위 치 : 강원도 영월 연하리 연하계곡
- 부 지 : 9,600평, 650고지, 차량진입 가능
- 집 1채 (2층 사용), 집 창고 1채
- 십승지, 사찰 및 사찰 요양원 최적지
- 일반 건강 요양원 최적지, 교육원 시설 최적지
- 글램핑캠핑가능, 최상의 자연환경
- 가 액 : 10억 (약간의 조정 가능)

010-6701-770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간과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으로 해결하세요. (본초강목)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엄혹한 시대, '求道영화'로 넘다



이안의 Media In Buddha

㉞ 불교고전영화 〈만다라〉,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한국을 대표하는 불교영화 중 하나인 〈만다라〉의 한 장면.

대표 불교영화 '만다라', '달마가…'
불교 구도심 담긴 대표적인 고전
해외 영화제서 수상… 불교 알려

한국영화 1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 가운데서 반드시 꼽히는 불교영화라면 특히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이 꼽힌다.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이 만든 〈만다라〉는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의 협업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으로 꼽힌다. 수행자로서 겪게 되는 번뇌와 만행의 과정에서 계율로 자신을 다스리려는 법운 스님(안성기 분)이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무애한 해탈의 길을 구하는 지산 스님(전무송 분)과 맞닥뜨리며 품게 되는 고뇌를 영화는 법문이 아니라 영상으로 풀어낸다.

영화 시스템 밖에서 배용균 감독이 구도하듯 만든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한국영화 역사상 최초의 1인 제작 방식의 영화이자 그 시도가 불교영화이자 예술영화의 성취를 이룬 걸작이다. 1989년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에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가 3등상을 받을 당시 이 영화가 대상을 수상했던 일화는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 할 때마다 자주 언급된다. 젊은스님 기봉의 간절한 구도자적 번뇌와 수행을 독창적인 철학과 미학으로 담아낸 이 영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두 작품 모두 '달마'와 '만다라'라는 제목에서부터 불교적 작품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만큼 오락과 여흥을 앞세운 작품이 아니라서 아무 때고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영화들이 아니지만 불교 영화로서만이 아니라 작품 자체로 한국영화사뿐 아니라 세계영화사에 빛나는 작품들이다.

시대적으로 이 두 작품 모두 1980년대 작품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정치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인 유신 시대부터 5공화국 내내 검열이 일상이었던 시기인 1981년에 발표된 〈만다라〉에 대해 아시아 최초로 촬영감독으로서 회고전의 주인공이 된 정일성 촬영감독은 "어두운 시대에 더 어두운 영화를 통해서 저항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정일성 촬영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내가 직장암 수술 후 병원에 있을 때 임권택 감독이 소설 〈만다라〉 소설을 갖고 왔다.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장소 헌팅에 나섰다"며 "〈만다라〉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찍은 작품이다. 이 작품을 통해 영화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만다라〉 크랭크인 날짜가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식 날짜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식을 본 후 저항심이 들었다. 그래서 임권택 감독에게 '이번 작품은 로우키(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로 찍고 싶다'고 말했다. 임권택 감독도 흔쾌히 허락하더라"라고 했다. 현실의 억압을 영화의 미학으로 어떻게 극복해왔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당대 최고의 감독들과 수없이 많은 작업을 해오며 한국영화의 촬영 미학을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던 정일성 촬영감독이 검열을 넘어서기 위한 저항의 방식이 바로 〈만다라〉의 어두운 영상인 것이다. 이렇게 검열을 피하면서도 시대적 억압을 불가의 고뇌에 담은 〈만다라〉는 개봉 당시 대종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비롯한 7개 부분에서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해 한국의 영화와 불교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가 영화 〈만다라〉를 보면서 소설과 영화,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만다라'에 대해 조금은 깨우침을 얻게 되는 것은 작품이 거쳐 온 내력에도 담겨있다. 영화 〈만다라〉의 원작인 소설 〈만다라〉를 쓴 김성동 작가는 열아홉에 입산해 여러 선방과 토굴에서 정진하던 승려였다. 1974년 〈주간종교〉의 종교 소설 현상 공모에서 단편 소설 〈목탁조(木鐸鳥)〉가 당선되었을 당시, "악의적으로 불교계를 비방하고 전체 승려를 모독했다"는 오해 속에 김성동은 승적을 박탈당하고 나서 쓴 중편 소설이 〈만다라〉이다. 1978년에 〈한국문학〉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면서 김성동은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활동하게 됐다. 이 소설이 당대 최고의 감독 임권택을 만나고 임권택 감독이 가장 신뢰하는 촬영감독 정성일과 함께 영상으로 옮긴 영화 자체가 고도 '만다라'인 것이다.

'만다라'는 범어로 Mandala라고 한다. Manda는 '진수' 또는 '본질'이라는 뜻이며 접속어미 la는 '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다라의 본래 의미는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불화를 뜻한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하는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에 불가에 입문한 불자가 득도하기 위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고뇌와 방황을 통해 진정한 도는 지식이나 수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깨달음을 그린 이 작품은 당시 타락한 사찰 불교를 비판하는 시각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 삶, 존재의 문제를 가장 치열한 세속과 출가의 경계를 통해 다루는 불교 문학의 수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87년 6월 항쟁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열망이 다양한 시도로 드러나던 1989년에 발표됐으나 당시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배용균 작가가 기획 8년, 제작 4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혼자 제작, 연출, 각본, 촬영, 미술, 편집, 조명 등 영화 제작의 모든 과정을 도맡아 국내 개봉이 아니라 해외영화제 수상을 통해 알려진 작품이다.

영화사 설립을 허가제로 통제하던 시기에 개인으로서의 작가가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길고 긴 인고의 시간을 거쳐 나온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한국영화 역사상 전대미문의 시도이자 예외적 미학의 성취를 이루면서 1989년 제4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는 실력 있는 신인 감독의 작품을 소개하는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었고, 이어서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대상인 황금표범상을 비롯해 국제기자협회상, 기독교평론가상, 청년비평가상 등 특별상까지 석권하면서 한국영화와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상 이듬해인 1990년 3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봉한 것은 당시까지 한국영화가 상업적인 기반으로 프랑스 파리 시중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첫 사례였다.

배용균 감독은 1981년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 1985년 촬영을 시작했고, 4년 동안 작업 끝에 영화를 완성했는데, 각본과 연출은 물론 촬영, 조명, 미술, 편집에 이르기까지 당시 제도권 영화계가 해온 제작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1인 독립 제작'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또한 기성배우들이 아니라 연기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캐스팅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집단작업으로서만 가능했던 영화예술을 개인적인 창작차원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영화는 상영시간 2시간15분 내내 심오한 불교철학, 구도의 자세뿐 아니라 한국적인 영상미의 극치로도 평가받으면서 "감독의 구도자적 자세로 인해 영화의 모든 장면이 하나의 시이자 그림이며 침묵이 된다"('죽기 전에 꼭 봐야 할 한국영화 1001', 이세기)는 평가와 더불어 이후 한국 독립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낳게 되었다.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⑨

1. 대한불교조계종은 2011년 3월부터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5대 결사 운동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명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생명결사
② 종교간 평화와 남과 북, 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한 평화결사
③ 민족문화를 바로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해 나가는 문화결사
④ 불교 초기의 수행법을 확립하고 바로 세워나가기 위한 수행결사
⑤ 사찰이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터전이 되도록 하는 나눔결사

해설 : 대한불교조계종은 중국에서 성립된 선종과 간화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초기불교의 수행법은 보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이 1950년에 티베트를 점령했고, 티베트인 10만여 명이 1959년에 인도로 망명하면서부터 티베트 불교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을 이끌고 인도에 망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지금도 독립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이 티베트의 독립을 지원하고 그들의 현실을 알리려는 마음으로 국내에서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개최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는 누구인가?

① 샤론 스톤 ② 리차드 기어 ③ 올랜드 블룸 ④ 헤리슨 포드 ⑤ 키아누 리브스

해설 : 위에 열거된 할리우드 배우들은 불교와 가까운 인물들이며, 특히 리차드 기어는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으로 티베트의 불교와 독립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오늘날 서양에서 불교가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템플스테이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불교는 참선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② 불교의 믿음이 서구 종교의 전통적인 창조주 신앙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③ 불교는 자연과의 합일과 조화를 중시하고 친환경적인 삶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④ 불교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⑤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사상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고 그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 사찰이기 때문이다.

해설 : 불교는 서구 종교의 전통적인 창조주를 믿지 않는다.

4. 템플스테이는 예불, 참선, 다도 등 사찰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자의 삶을 엿보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정신문화를 전하는 한국불교의 독특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에는 서양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서양 전통의 종교적 믿음과 한국불교의 신앙이 서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②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찾아주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③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④ 자연과의 합일 혹은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불교 전통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사상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 불교의 전통사찰문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설 : 서양 전통의 절대적인 인격신과 한국불교의 친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선불교 전통의 신앙은 부합하지 않는다.

5. 전통 문화의 단절 현상을 초래한 원인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일제 36년 간의 식민지배
②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문제
③ 전통 문화의 주체적인 변화
④ 서구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수용
⑤ 전통 가치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 풍조

해설 : 전통문화의 단절 현상이 초래된 것은 일본, 서구 등의 외부로부터 기인한 여러 변화와 경제적 발전에 의한 대가족의 해체, 전통 가치에 대한 무관심에 의한 것이다.

정답 : 1. ④ 2. ⑤ 3. ⑤ 4. ① 5.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77회 임시중앙종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중앙종회는 2024년 3월 7일 일붕선교종 총본산 서울 종로구 일붕선원에서 제77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하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 2568년(2024) 2월 28일

제12대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불기 2568년(2024) 2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창간 30주년 1994~2024
현대불교신문사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귀 종단과 2024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❺ 98명 바보들의 행진, 〈백유경〉



▶한줄 요약
〈백유경〉에 담긴 98가지 바보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싱겁기 짝이 없을지 몰라도 그 끝에 간단하게 실린 해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할 화두가 됩니다.

바보 같은 우리 이야기를 담다

상가세나 스님이 쓴 이야기 교리서
98가지 우화로 반면교사 교훈 전해
아이용 생각하기 쉽지만 어른 적합
해법 알아도 실수 되풀이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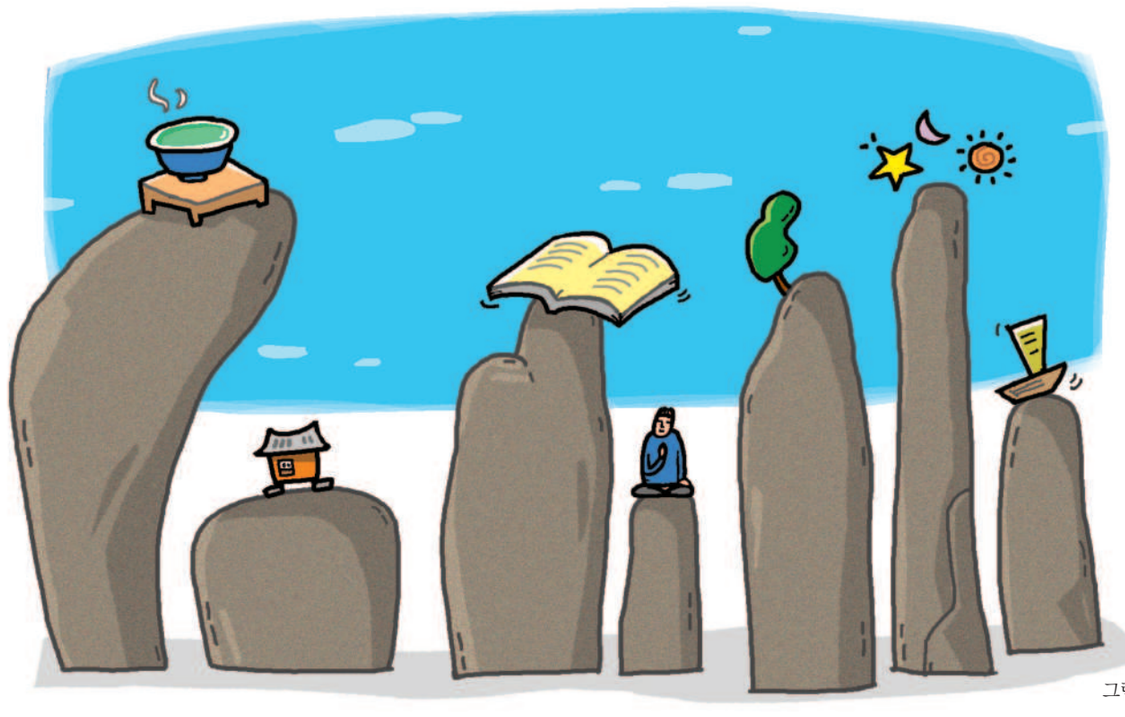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경

꽤 오래 전 일입니다. 불교계 신문사 한 곳에서 경전 연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신문사 측에서 제안하면서 특별히 내게 부탁한 것은 "제발 좀 어렵지 않게 써주세요. 쉽고 재미있게, 아셨죠? 꼭이요!"였습니다.

문득 〈백유경〉이 떠올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백유경〉을 그리 꼼꼼하게 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굳이 〈백유경〉을 선택한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주 짧디 짧은 내용이 98가지 실려 있고, 그 내용들이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쉬우리라는 어림짐작이었지요. 이렇게 〈백유경〉과 만났고, 그 만남은 점점 사랑이 깊어져서 요즘은 불교강의를 할 때면 생각지도 않게 〈백유경〉 속 이야기들이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백유경〉의 가장 큰 특징을 들자면 경전을 지은 사람 이름이 또렷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가세나라는 인도스님이 사람들에게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지은 이야기책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오하다는 불교교리가 담겨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백유경〉에 실려 있는 98가지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고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98가지 유형을 다룬 경전입니다. 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인데 대체 그런 바보가 누구일까요? 나와 당신, 우리, 바로 중생입니다.

그 바보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음미해보면, 불교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 종교인지 그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꼬집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경을 아이들에게 권하지?

어처구니없는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짧게는 두어 줄의 문장으로 보여주니 이 경 전체를 읽는 데에 긴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시며 읽어도 완독했을 때 커피잔은 여전히 온기를 머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자들은 이 〈백유경〉을 '뭐 그리 꼭 읽어야 할 경은 아니군. 애들이나 읽으라 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백유경〉을 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내용 정도로 파악해서 딱 그 눈높이에 맞춘 단행본도 간간이 만납니다.

그런데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백유경〉은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이만 먹었지 생각은 조금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읽어야 하는 경전, 이 경 속에 등장하는 98종류의 바보 중에 '나는 어떤 유형의 어리석은 사람일까'를 어른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어진 경전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사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강력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바보 같은 어른들 모습을 자꾸 보여줄 일이 뭐 있나요? 창피하게시리. 어른들 스스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경에서 찾아보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백유경〉을 소개할 때면 늘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사람들은 이 책의 주인공이 망토를 두른 노란 머리의 어린 왕자이니, 이 책을 어린이용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제일 앞장에는 헌사와 함께 저자인 생 텍쥐페리의 '사과문'이 실려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사과문은 이렇습니다.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데 대해 어린 독자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내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그 어른이기 때문입니다.(중략) 어른도 한때는 어린이였지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아이들이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한때는 어린이였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서 몸집만 커진 어른들이 꼭 읽기를 바란다는 저자의 헌사입니다.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어렸을 때 읽었다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덮어버렸지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4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읽었는데 아! 한 문장 한 문장이 저릿하게 뇌리에 새겨지는데 전율했습니다. 이 책은 우왕좌왕하며 살아오던 어른이 인생의 어느 한 지점에 잠시 멈춰서서 살아온 인생을 통째로 되돌아볼 때 읽어야 할 책이라는 걸 알게 됐지요.

사람들은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주 착각하곤 합니다. 자신은 이미 인생에서 알아야 할 것을 알만큼은 다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백유경〉은 바로 이런 어른들에게 "아니거든요? 제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자신을 바로 보세요. 방금도 바보같이 굴지 않았나요"라며 꼬집는 경입니다. "그런 건 세 살짜리도 다 아는 이야기야"라고 말하지만 여든 살이 되도록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어른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유경〉을 아이들에게 권하는 것은 그만 멈추고, 긴 문장은 절대로 읽지 못하는 어른들을 위해 친절하게 짧게 써준 이 〈백유경〉을 진지하게 펼쳐 읽어보시고, 그리고 길게 생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백유경〉 이야기 몇 편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런 이야기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뜨거운 불이 필요하고 또 찬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불 위에 두었지요. 한참 지나서 가보니 불은 꺼졌고 찬물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뜨거운 불과 찬물 둘 다를 잃고 말았습니다.

(〈백유경〉 25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늘 양손에 떡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놓지 못하고 있지요. 한 손의 떡은 욕심과 집착을 줄이고 자주 조용한 곳에서 마음공부에 힘쓰라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다른 한 손의 떡은 이왕 세상에 태어났으니 즐길 만큼 즐기다 가련다는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하나는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절에 오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챙기려 합니다. 결국은 어느 것 하나도 얻지 못하고 둘 다를 잃고 말지요.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 손의 떡을 챙기시렵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흉가가 한 채 있습니다. 모두들 애써 그 집을 피하는데 스스로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섰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겠소."

그가 성큼성큼 흉가로 걸어가서 안채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귀신은 무슨!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오겠소."

뒤늦게 흉가를 찾은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먼저 와서 잠을 청하던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남자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남자는 귀신이 안에서 자신을 막아선다고 생각하고서 더 세게 문을 밀었습니다. 밤늦도록 문 한짝을 사이에 두고서 두 사람이 서로 밀고 당기며 보냈지요. 마침내 훤히 날이 밝아오자 자신이 힘을 겨루었던 상대가 귀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64번째 이야기)

귀신이 진짜로 있었던가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귀신을 세워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진짜로 귀신이 있다고 믿어버렸고, 밤새 귀신과 온힘을 다해 싸웠지만 밝은 태양 아래에서 확인한 것은 자신들의 착각뿐입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자리한 어떤 관념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원숭이 이야기도 있습니다. 콩 한 줌을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그만 콩알 하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는 그 콩 한 알을 집으려고 주먹을 펼쳤고 그 바람에 콩 전부를 잃고 말았습니다. (88번째 이야기)

살면서 실수 하나쯤 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깊은 후회와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은 잊어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잠재성입니다. '잠을 자다 이불킥'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살아야 하니까요.

〈백유경〉에 담긴 98가지 바보 이야기 끝에는 반드시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 자체는 싱겁기 짝이 없을지 몰라도 그 끝에 간단하게 실린 해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야 할 화두가 됩니다. 음미하다 보면 때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더 잘 살게 해주겠지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경, 바로 〈백유경〉입니다.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어싱 매트·베개·온열방석 특판 할인

※ 어싱(Earthing)이란, 한마디로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맨발로 걷거나 앉아있고 누워있음으로 인해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대지의 어머니와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다. 음이온, 음전하, 음전자가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구는 거대한 음전하를 띠고 있다. 어싱을 하면 음전하가 몸에 유입되어 유해한 활성산소를 억제한다. 염증반응을 줄이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몸이 자연스레 밸런스를 찾게 된다.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판매 기념
전 구매고객 구절초 샴푸 증정
기간 : 2024년 1월 25일~2월 13일

그래핀 어싱 건강용품 할인가
찜질(디톡스) + 어싱(맨발걷기) + 온열(체온면역)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팥) S
판매가 1,980,000
⇒ 할인가 1,800,000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매일 30분, 찜질로 면역력깨움!
그래핀 온열 어싱매트
#깊은잠 #면역력 #건강회복 #붓기 #몸이개운해짐 #정신건강
15만원 상당 전신찜질팩 증정
찜질 디톡스 + 어싱 맨발걷기 + 온열 체온.면역
일반 전기 열선 매트 vs 돌꽃잠 탄소원적외선발열체
※열선이 없습니다!
그래핀 원적외선 어싱매트는 70℃에서도 열음이 녹지 않습니다

하루 15분
하루 15분, 앉아만 계세요!
그래핀 좌훈 케겔운동기
#케겔 #좌훈 #남녀공용 #근적외선 #하체코어근육 #항문질환 #음파운동기
그래핀어싱 맨발걷기 / 근적외선 LED라라찌 / 블루투스 스피커 / 원적외선 좌훈.좌욕
9만원 상당 어깨찜질팩 증정
사운드테라피 : 고래소리의 비밀
소리와 파동(음파)으로 사람의 신체를 공명시키는 비침습적 음악치료
-물속은 공기보다 5배 빠른 전파력
(돌고래-음파+초음파로 대화)
-우리몸의 수분(혈액)을 매질로 이용, 치유하는 음파

숨 그래핀 어싱 베개(아치형)
특허청 / KAA 대한아토피협회 / FITI테스트 항균99.9% / FITI테스트 6대중금속 검출안됨 / KATRI(한국의류시험연구원) 테스트 완료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쉴 수 있어야 진짜 놓는 것이다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질문 둘이 아닌 도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이해는 가지만 확실히 몸과 마음이 각각 있는데 어찌 둘이 아니라 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우리가 항상 몸을 보시면 아신다고 그랬죠. 몸을 보실 때 공체죠. 간단히 말해서 공체로 우리가 살죠. 그런데 딴 사람도 공체란 말입니다. 딴 사람도 공체고 나도 공체고 전부 여기 있는 분들 다 공쳅니다. 공체고 공생이고 공심이고 공용을 하시고 사시고 또 공식으로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하는 것도 공식으로서 그냥 들이고 내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두 전체가 공해서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역시 그래요. 지수화풍으로 생겨서 사는데 지수화풍이 있어야 또 살죠.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눈 하나를 본다 하더라도 눈으로 여기저기 보지 한 군데만 보고 사는 분 없죠. 듣는 귀도 그렇고요. 모두가 몸 전체가 다 부딪치는 데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잠시 살짝살짝 그냥 넘어가죠. 화해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화해서 돌아가죠. 그러니깐 함이 없이 산다 이겁니다. 사는 게 없이 산다 이 소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하는데, 다시 옷을 벗고 돌아서 탄생을 하니까 다른 부모한테 태어났어요,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부모의 자식이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서 짐승의 자식이 되고, 짐승의 부모가 되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가 보니까 남녀노소도 없이 그대로 늙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염주알을 꿴 줄과 염주알이 둘이 아니요, 뿌리와 싹이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뿌리의 세계를 알아야 뿌리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나오면서 자꾸 화해서 모습이 바뀌는 거, 인연에 따라서 나오는 거를 50%만 아는 게 아니라 100% 돌아가면서 알아야 '아, 모두가 둘이 아니로구나!' 하고 진실하게 알지, 직접적인 행을 실천해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둘이 아닌 줄 알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고 깨어났다가 죽는 도리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가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과거에 살던 나와 현실에 살고 있는 내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해야 비로소 진짜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너 나가 없이, 네 부모 내 부모 아님이 없이 자비를 베풀 수가 있고 마음을 낼 수가 있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너 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습만 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음도 둘이 아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혼이 둘이 아니라면 진짜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습은 따로따로 있을지언정 한 줄에 꿰어져 있는 겁니다. 염주알은 따로따로 있으나 한 줄에 꿰여 있으니까 너 나가 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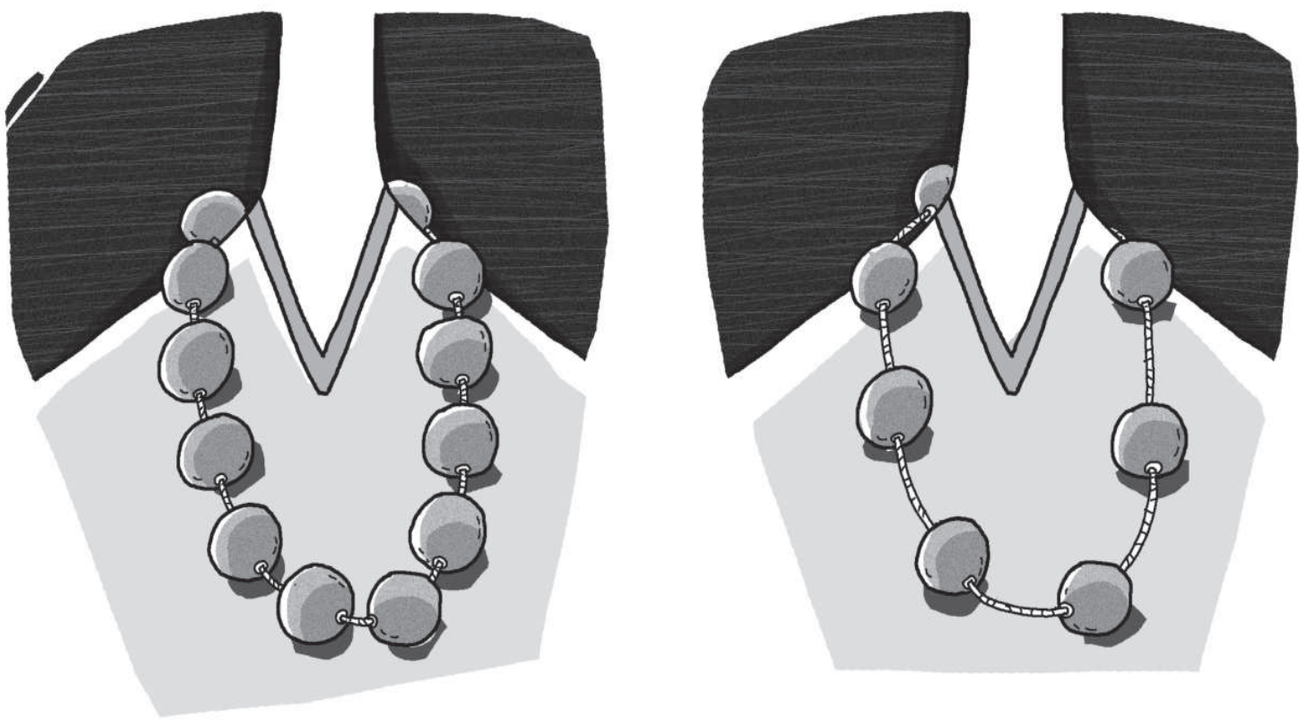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조건 놓아야 하는지…

질문 공부를 하다 망상이 날 때 그냥 무조건 놔야 하는 것인지 의정을 갖고 몰아가야 되는 것인지 혼동이 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체를 놓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셨지만 뒤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마음으로 끼어 잡고,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상도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 내는 원소 자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망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로부터 이끌어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됐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이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내면에 그대로 들이고 내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들이는 숨, 숨 쉬는 것 있죠? 들이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고, 내쉬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 그러면 들이고 내는 숨 쉬는 것은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생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들이고 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들이고 낼 것조차도 없죠.

그리고 여직껏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되어서 끌고 온 장본인,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간파를 못 하니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도 못 하니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놓는 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의단도 대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의단을 한다면 그거는 빈 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한때 이런 예가 있었죠. '이 길이 대로의 길이 아니니라.' 정말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천야만야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가 아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 19면에서 계속

사람들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그거는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못 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이런다면 스스로서 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뜻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변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싱긋이 웃을 때가 있고요, 나는 가끔 그러길 잘해요.

옛날에도 어떤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 부모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것은 무슨 연고인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늘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땅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더란 얘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들이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면 될 거를 그냥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걸어가나 하는 생각에 고만 걸리는 겁니다. 다리 많은 지네가 어떻게 서슴지 않고 잘 걸어갑니까? 다리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두 다리로 걸어가건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걸릴까 봐 바들바들 떠니까 걸리죠. 모두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잘못이 거기에 대두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스려야 한다.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놔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여여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 행을 하고, 이익하게 말하고, 또는 이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 소립니다.

끓어오르는 마음 다스리고 싶어요

질문 하루에도 수없이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인공에 놓아 보지만 그 순간 잠시뿐 다시 머리를 쳐들고 올라옵니다. 이 마음 공부 한다는 불자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만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마음 자체가 어떻게 해야만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갈 수 있고, 다스리는 그 마음이 중심에서 양면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안에서 벌어지는 마음이 팥죽 솥의 팥죽 방울이라면 방울이 일어나는 대로 '이것도 문수 이것도 문수!' 했단 말입니다.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대장이나 소장에서 만약 어느 한군데서만 파업을 일으킨대도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귀퉁이 어디고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야만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로워져서 부자 부럽지 않게 마음이 넓어질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이 부자라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정말 대장부의 살림살이요 또는 어디고 가난치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이 당당한 것이요, 그것이 부자가 돼서 부자가 아니라 내가 쓰려면, 내가 필요한 거면 어디서든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묘한 도리를 여러분이 모른다면 만날 가난하기에 바쁘죠. 가난뿐이 아니라 재난이 들어와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또는 병고가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지렁이를 볼 때 보기 싫고 징그럽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속에는 똥통도 들어 있고 구더기도 있고 또는 진드기도 있고 거위도 있고 촌충도 있고 벼룩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왜 그렇게 내 몸에 들어 있고 왜 그것이 곧바로 나였던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역사를 볼 때에도 미생물의 시대가 있었고, 곤충의 시대가 있었고, 또 그 뒤에는 공룡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나기 전에 그렇게 미리미리들 그렇게 진화돼서 올라오기 위한 그 수련이, 그렇게 수많은 모습을 바꿔 가면서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온 것이 그게 바로 정신 수행입니다.

자연적으로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쫓고 쫓기면서, 마음이 그렇게 해서 진화돼 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바꾸고 한 게 인간까지 올라왔다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말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나, 참나의 속에 다 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무수한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끝없는 길입니다.

그럼 인간이 되어 가지고도 또 짐승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또는 독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하고 말하고, 남의 탓을 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살리고 온통 부서지게 하고 남을 해롭게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틀림없이, 미래에 올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거에 한 일은 현실에 너무나 더 잘 아시고요.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그 동기를 항상 지켜본다면 아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악업 선업으로 뭉쳐 있다가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마시고, 누가 되는 일은 하지 마시고, 누가 아니 되는 거는 하시고, 들이는 것도 바로 여기 주인공 자리에다 맡겨서 들이고, 내는 것도 여기다 맡겨서 낼 수 있다면, 지금 레이더망에서 들이고 내면서 책정해서 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돼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리고 재료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말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지수화풍을 바탕으로 삼아서 돼 있다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의 의식으로서 산다면 물질세계의 노예고, 그것은 끝 간 데 없는 길을 고통스럽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으면서 죽지 않는다면 열반이 아닙니다. 살아서 이 도리를 알고 죽어야 열반이지, 만약에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고 죽는다면 그건 그냥 그대로, 그 고통 속에서 죽는다 산다도 없이 끝없는 길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깨치고 본다면 모든 것이 마음은 체가 없어서 악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가고, 선으로 나가도 수없이 나갑니다. 어느 쪽으로 나가느냐가 문제죠. 야! 이게 또 묘한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다스리는 마음이 없다면, 바로 거기서 맘대로 '내가 저걸 꼭 훔쳐와야겠다. 남이야 살건 말건 나는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이 의식들은 그것이 나쁘고 좋고를 모르기 때문에 다 따라 줍니다. 그 마음이 서면 악도 그만큼 있고 또는 선도 그만큼 있습니다. 선이 더 많으냐 악이 더 많으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이 인간으로서 살지만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즐거웁게 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으로 괴롭게 사는 사람이 있죠. 만약에 같은 물을 마셔도 독사가 먹는다면 그건 독이 될 것이고 약초가 먹는다면 약초가 돼서 인간을 살립니다. 칼도 칼 나름입니다. 의사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살리지마는 강도는 칼을 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이 모두가 상대성 원리입니다. 부처도 중생도 풀 한 포기도 다 내 소유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소유가 돼야만이, 그때 가서는 나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오고, 바로 그때에 부처님이 뚜렷하고 중생이 뚜렷하고, 하는 일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고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미운 걸 보면 그렇게 미웁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기 싫고, 또 부부지간도 그렇고 자식지간도 그렇고 일일이 그거를 미워하죠, 잘못하는 걸 보면. 그러나 이쁜 일을 조금 할 때는 좋아서 그냥 발발발발 하지, 누가 좋은 말을 해 주면 좋고, 속이야 어떻게 됐든지 좋은 말을 야불야불 해 주면 아주 좋아하고, 진실로써 '너는 이렇다' 지적을 해 주면 그게 듣기 싫어서 왈칵 화가 나고 '너 두고 보자.' 이러고, 이러는 마음이 자기를 깎아먹게 돼요. 이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으니깐 모두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내가 공해서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며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허허 웃고 '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그놈이 그놈이로구나.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너희들 해결해라.' 하고 거기다 놓으면 되지, 거기에 끄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모두가 어떤 것이 속에서 나오더라도 '아하! 이것은 나를 둥글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으로 치는구나. 이건 또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 나를 치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거기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탓도 안 되고 증오도 없고 배신도 없고 미움도 없고 얼굴에서 웃음이 띠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의 주인공은 '착하고 착하구나. 너는 네가 나온 도를 알고 네가 행하는 도를 알고 네가 말하는 그 법을 아는구나.' 하고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에 그 마음들이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고 나면서 여러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죠.

요것 버리고 조것 버리고 다 버린다면 뭐 남는 게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거를 정복하겠습니까? 더럽다고 버리고 미웁다고 버리고 또 즐겁다고 들이고 이런다면 하나도 없이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결돼서 넣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어서 다 나 아님이 없더라 할 때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합니다. 이 실생활 속에서 바로 도가 있는 거지 실생활 빼놓고 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부처로 만들 수 있고
법신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며
나를 수련시키는 채찍이 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김영애 법사의 안심뜰

⑤ 오직 나무아미타불

오래 하되 진실하게 염불하세요

짓지 않고 받기를 바라거나 짓고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내가 지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지혜롭게 살 수 있다. 반갑지 않은 일이 닥쳤다 해도 그것은 하늘이 벌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혹은 조상님들의 묫자리가 나빠서도 아니다. 지난날에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업이 모두 씨앗이 되어 오늘의 열매를 맺게 한 것이다. 스스로 지은 게 나타난 것이니 원망하는 마음 갖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법문을 듣는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무릇 있는 바 상은 다 이것이 허망하니 만약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다. '무릇 있는 바 상'이란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내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세계라고 보는 그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인 세계만이 있을 뿐이다. 눈에 보이는 그 상대세계가 본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라는 말씀이고, 본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고 하신 것이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나의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분별심은 겉으로 나타난 상이기에 모두 항복받아야 할 것들이다.

'항복해야지' 생각을 한다고 항복되는 게 아닌 걸 잘 알기에 오늘도 그저 나무아미타불을 할 뿐이다. 상에 속아 번뇌에 매였음을 참회하며 아무런 괴로움 없이 즐거움만 있는 세계, 아미타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원한다. 자나 깨나 원왕생 나무아미타불.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원왕생 나무아미타불. 다만 오직 나무아미타불을 한다.

염불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것이다. '나의 참생명이 부처님 생명'이라는 법문을 듣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염불이라고 한탑 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해주셨다. 살아있을 때도



내가 지은 것, 나에게 돌아온다
원망 대신 내 마음부터 바꿔야해
분별심 없애기 위해 염불해보자

임종 시에도 다만 오직 나무아미타불 염불하길 발원하며 수(修)서방십권의 말씀을 모셔본다.

염불을 오래 하되, 모름지기 진실해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여 의심하지 말고 원숭이처럼 들뜬 마음을 다스려서 제멋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불만 생각하고 딴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여 결단코 서방왕생을 원하면 임종할 때 스스로 여래께서 오심을 뵈올 것입니다. 염불은 모름지기 애착과 탐욕부터 끊어야 합니다. 임종할 때 마음이 깨끗해야 여래를 뵈오니, 마치 깨끗한 달빛이 푸른 연못에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에 극락의 보배연꽃이 맞아주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함께 오실 것입니다. 염불할 때는 고통이 심하다고 해서 그만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사에 윤회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다시 누군가에게 벗어날 길을 구하겠습니까? 염불할 때는 항상 쉬지 말고 꾸준히 합니다. 수순하며 평상시에 염불하지 않으면 어느 날에 생사의 지옥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염불에는 몸과 말과 뜻의 삼업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지 공경예배하고 서방을 원하면 그곳에 가서 아미타불의 뛰어난 빛을 친견할 것입니다. 염불을 닦으라고 가르친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땅히 본사의 말씀을 따르고 받들면 목숨이 끝나고 아미타불국토에 왕생할 것입니다.

염불에는 진실한 마음이 으뜸입니다. 그러면 임종할 때에 화신불이 함께 와서 맞이하며 칠보의 연꽃이 원에 따라서 유도할 것입니다. 염불은 모름지기 마음과 입이 언제나 절박해야 합니다. 업의 바다에서 괴로운 윤회의 수레바퀴가 깊음을 헤아려보니 생사에 휘둘릴 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문사수법회 법사〉

건강 365

⑪ 줄기세포 활용 치료법

무릎 관절, 줄기세포로 지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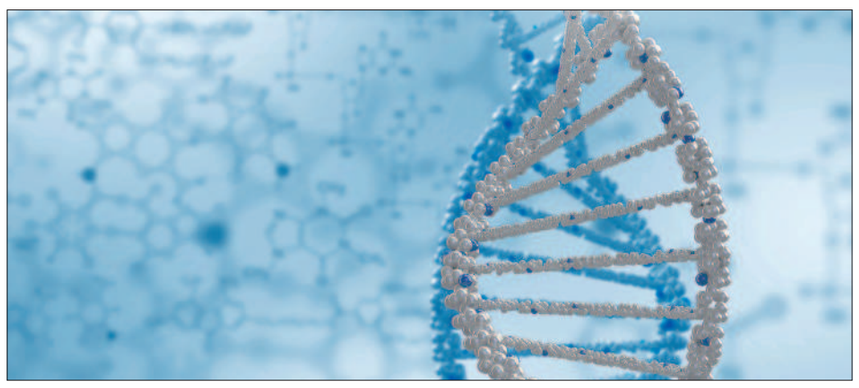
줄기세포는 특별한 종류의 세포로, 다른 종류의 세포들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 중 어떤 종류의 세포로든 변할 수 있는 '다목적' 세포입니다. 이는 그들이 필요한 장소로 이동해 해당 부위에서 필요한 종류의 세포로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다재다능한' 세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양한 조직과 기관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중 어떤 부분에서도 필요한 세포들을 생산하고 보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때도 중요한데, 손상된 조직을 치료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런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염에 관절강내 주사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골수 흡인 농축물(BMAC,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관절강내 주사'이며, 그간 수많은 임상을 통해 안정성과 효과가 인정돼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신의료기술'입니다. 국소마취 후 골반뼈 쪽의 장골능에서 작은 바늘을 이용해 골수를 채취한 후 이를 분리해 농축된 골수에서 뽑아낸 줄기세포를 손상 부위에 주사해 치료하는 방법으로써, 자가치유능력을 이용해 놀라운 연골재생 효과를 보여줍니다. 골수 채취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줄기세포 분리, 무릎 주사 한꺼번에 이뤄져 1시간 정도의 시간이면 시술이 가능해, 바로 다음날부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방법들이 개발되고 환자들에게 시행됐습니다.

과거에 도입된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법인 반면에,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수술을 하지 않고 줄기세포 농축물을 직접 주사로 이식하는 방법이 차이점입니다. 환자에게는 마취 위험성이나 수술적 방법에 의한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연골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수술의 마지막 과정으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기존 연골주사치료와 비교할 때 타 주사제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1회 시술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1차 치료제는 아니며, 기존 주사제 치료로 효과를 못 본 환자 중에 선택적으로 치료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제한이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예전의 연골재생치료들은 수술적 치료이기도 하나 대부분은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0대나 60대 환자분들도 예전 3~40대 못지않게 관절관리를 잘 하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하다보니 관절염이 있다고 해도 관절염 수술보다는 연골 재생술에 더 관심이 많고,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이 기준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고령의 활동적인 환자분들께 치료할 수 있는 수술 외적인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이제한이 없더라도 모든 환자분들께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등도의 관절염(ICRS 3~4등급 또는 KL 2~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해서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수 흡인을 하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수 흡인은 관절 치료에 이용되기 훨씬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골수 검사를 시행할 때 흔히 이용되던 방법이며, 부분마취 또는 수면마취 이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의 과정에서 통증이 없습니다. 시술 이후에도 하루정도 시술 부위가 뻐근할 수 있으나 하루, 이틀 뒤면 통증은 거의 호전되므로 통증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술의 전 과정은 병원에서 가장 깨끗한 구역인 무균수술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감염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치료효과는 적용 부위나 개인차에 따라 다르지만 줄기세포 이식 후 세포 재생이 활성화되는 2~3개월부터 효과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다만 환자별 무릎 증상과 상태에 따라 최초 체감 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는 외부 물질이 아닌 자신의 줄기세포를 이용해 부작용이 거의 없으며, 어떤 조직이든 될 수 있는 만능세포인 줄기세포를 이용한 주사치료이기에 연골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여러 환자 중 중등도의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까지 고민하고 있는 경우 수술을 피하거나 미룰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법 역시 만능은 아니기에 치료 전 정밀 검진과 의료진과의 진료는 필수이며 시술의 전 과정이 무균수술실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영경
거인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전법 일기

명상으로 돌아본 나 남편과 대화가 되네

"스님! 저희 식구들이 편안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남편이랑 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어땠는데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대화가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명상공부하면서 제가 남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나봐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이제 남편과 대화가 되니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자녀들과도 대화가 편해졌어요."
"어떤 면이 달라졌나요?"
"돌아보니 주로 제가 말을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대화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나의 요구만 반복해서 늘어놓았던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내 주장만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오히려 남편 탓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대화를 시작하니 집안 분위기도 편안해졌고요."

한 달에 한 번 하루,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명상프로그램을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참여자들은 〈대념처경〉을 기반으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는 붓다의 길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는 왜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사실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노력들이 좌절된 경험이 쌓여갔던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 할 때에 상대가 나의 관세음보살이 되어주고, 그가 근심과 탄식에 빠져있을 때에는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관세음보살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소감을 들을 때에 힘이 나고 보람을 느낍니다. 번뇌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도반과 함께 공부하고 신행생활을 함으로써 자신이 겪는 괴로움을 벗어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어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엔 괴로워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고집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괴로움이 작아지고 상대도 편안해지게 됩니다.

원래 많이 밝은 분이라 집안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곧, 밖에서는 자기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잘 배려하고 살피는 총무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데 남편에게는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분은 표정이 너무 밝아지고 집안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방향을 스스로 찾게 되었습니다. 붓다의 길로 가서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런 신행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② 우울한 시대에 부치는 편지

우리 함께 멋진 추억 만들어보자

"어린 시절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학교 옆 아동상담소에 한동안 붙어 있던 표어다. 출퇴근을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몇 번씩이나 마음속으로 되뇌어본 문장이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우울할 때, 이젠 나도 모르게 어린 시절을 떠올려본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다 어디에 숨어 사는 걸까. 조각보를 잇듯 몇 개의 사진으로 추측해보는 나의 어린 시절은 과연 맞는 기억일까. 십여 년이 넘게 정신분석과 무의식을 공부하고 있지만, 학자마다 자기만의 임상경험으로 내놓는 수많은 전문용어에 기가 질릴 뿐이다.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우리 내면의 풍경을 이룹니다'라고 알기 쉽게 말해주면 안 될까.

요즘은 대학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려고 해도 빈자리가 없어 예약을 하고도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어느 병원은 성인 조현병 환자들을 수용하던 폐쇄 병동 수십 개가 10대, 20대 청소년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것도 우울증이 심해져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아이들이란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다.

2018년부터 0점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명이 되었고, 2023년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제주도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그간 나는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며 거짓 찬가를 부른 것인가.

우울증 환자 제주도 인구 넘어서
후회와 불안, 걱정이 우울 가져와
공교육서 학생 자존감 향상시켜야
좋은 추억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

과거의 후회와 분노, 미래의 불안, 걱정이 '우울(憂鬱)'을 만든다. 끊임없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자책과 비난의 언어가 수풀을 이뤄 마음을 꽉 틀어막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자꾸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통스런 생각들이 수시로 떠올라 그걸 누르느라 진이 빠질 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누구나 우울의 숲에 갇힌다.

그럼 반대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 아이들이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일,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멋진 기억을 선물하면 어떨까. 뻔한 이야기 같지만 현재 우리 공교육이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교육의 세 가지 기준점이다.

새 학기 첫 수업마다 아이들에게 50년 후를 묻곤 한다. 나중에 예순 살이 훌쩍 넘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문득 50년 전 이 순간들을 떠올리면 이때가 그리워 눈물이 날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 같은 반 친구들끼리 서로 마음을 잘 모아서 이 그리움의 시간을 멋진 추억으로 만들어보자고 말한다. 멋진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의 문장을 함께 따라 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위함이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 삶의 중요한 진실을 배워가는 중이다."

어떤 후회와 분노, 불안, 걱정이 와도, 어떤 지독한 우울이 끝 모를 심연에 우리를 던져 놔도, 마침내 그걸 다 부수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다른 말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출가, 몰라서 못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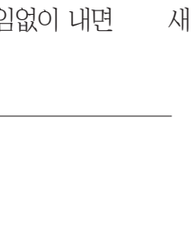
수원 봉녕사 여성출가학교 회향식을 취재하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대자유인으로 향하는 한 달의 값진 경험 덕분에 진짜 출가를 결심한 참가자가 나온 것이다. 바로 아녕(58) 참가자다.

입재식 당시 삭발까지 단행한 아녕 참가자는 '출가'에 대한 고민이 남달랐다. 참가 이유를 묻자 출가수행자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여성출가학교를 찾았다는 아녕 참가자. 늘 부처님과 가까운 삶을 꿈꿔왔지만, 출가의 문턱을 넘긴 어려웠다고 한다. 40대에 찾아온 기회는 세상 구경에 밀려 출가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 60세를 바라보는 지금은 더 이상 출가를 꿈꿀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런 그의 얼굴에 다시 웃음꽃을 피워준 건 곁에서 인터뷰를 지켜보던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이다. "지금도 출가할 수 있다"며 은퇴출가 제도를 설명하는 도연 스님에게 아녕 참가자는 "은퇴출가가 뭐에요" "저도 가능한가요" "은퇴 출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질문 세례를 쏟아냈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이 스님들에게 '은퇴출가'에 대해 물었다는 전언이다. 그렇게 그는 4주간 한국 전통 승가 생활을 직접 경험하고 출가의 마음을 굳혔다. 은퇴출가 제도가 출가를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라면, 출가학교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준 기폭제가 된 셈이다. 실제 여성출가학교 참가자들 가운데 출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들도 여럿이다.

출가학교가 출가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한국불교에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녕 참가자와 같이 제도를 몰라 출가하지 못하거나, 승가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불교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연령층에 맞게 제도를 홍보하고, 승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출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된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나날이 굳는 간 고통보다 더 큰
사진으로 만난 7살 딸 향한 그리움"

네팔 이주민 키란씨, 간 수치 일반인 40배 · 경화
수술받았으나…병원 빚 1400만원에 앞날 막막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포대화상 롤모델로 전법을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우리나라 사찰 도량에 포대화상(包袋和尙)이 모셔져 있는 곳이 많다. 포대화상은 뚱뚱한 몸집에 큰 배를 내밀고, 늘 웃음을 띠고 있으며, 등에 포대(걸망)를 짊어지고 있다. 포대화상은 중생이 그 어떤 것을 요구하든 포대에서 돈이든 과자이든 물건이든 꺼내서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다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포대화상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륵부처라고 한다. 중국 사찰의 99%가 포대화상이 모셔져 있다. 사찰 일주문에 모셔진 경우도 있지만, 승려 대중이 많은 사찰에서는 공양간 중간에 모신다. 점심 공양 때는 입승스님이 포대화상에 예 올리는 의식을 치른 뒤에 대중이 공양한다. 그 사찰의 상주대중이 편안하게 공양하며,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호위해주는 호법신장 의미로 보였다.

그런데 이 포대화상은 어떤 분인가? 화신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모델로 하였다. 포대화상은 당나라 말기, 절강성(浙江省) 봉화현(奉化縣)의 승려 계차(契此, ?~917)이다. 계차 스님은 늘 길에서 생활하며, 하늘을 이불 삼아 길에서 잠을 청했고, 저자거리에서 중생들과 함께 한 보살이다. 또 계차 스님은 농사짓는 사람들이 날씨를 물으면, 답변해주어 농부들이 대처했고, 홍수가 날 것을 예상해 사람들이 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 계차스님이 열반한 후에 계차의 고향인 봉화현에서 그를 미륵으로 떠받들었는데, 미륵불교의 발상지가 바로 계차 스님 고향이다.

포대화상, 절강성 승려 계차가 모델
저자거리서 중생과 동고동락한 스님
'입전수수' 우리도 중생 속으로 가자

필자가 포대화상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불교에서 전법의 롤모델로 포대화상을 이미지화 하면 어떨까 해서다. 근자 한국불교 대표 종파인 조계종에서 '성불하십시오'가 아닌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는 말로 바꿔야 한다며, 포교에 고조돼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찰 벽화에 십우도가 그려져 있는데, 10번째 그림이 포대화상을 모델로 한다. 십우도란 소는 번뇌를 상징하고, 목동은 선자(禪者)를 비유해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여정을 10가지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행자가 고군분투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단계가 아홉 번째인 반본환원(返本還源)이다. 그런데 아홉 번째 다음 열 번째가 입전수수(入纏垂手)이다. 마지막 그림인 입전수수는 포대화상과 동자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는 모습이다.

입전수수는 수행자가 정각을 이룬 뒤에 고요한 곳에서 해탈 경지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 속으로 들어가 중생과 함께 한다는 의미다. 입전수수 설명에서 승려가 계율 상 금기할 곳이 술집과 고깃간인데, 이 또한 중생이 머무는 곳으로 제도코자 한다면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간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선객들이 애독하는 자각 종색의 〈좌선의(坐禪儀)〉 첫머리에서도 "무릇 반야를 배우는 보살은 먼저 대비심을 일으켜 큰 서원을 세우고, 삼매를 닦되 중생을 제도할 것이요, 자기만을 위해서는 수행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과거 한국불교가 선(禪)을 위주로 하다 보니, 전법에 눈을 돌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 그런데 근자 들어 한국불교 어느 종파나 전법이 강조되면서 중생 교화에 마음 기울이고 있다. 불교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포대화상을 롤모델 삼아 열심히 전법하면 어떨까?

내가 바라는 공약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꿀벌을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무렵이면 엄청난 꿀벌이 사라지는 꿀벌군집붕괴 현상이 몇 년째 벌어졌다. 산림청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밀원숲 부족에서 찾고 있다. 자연적인 숲을 없애고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등을 심어서 꿀을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한다. 세계적인 흐름은 자연적인 숲의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도 말이다.

우리나라랑 위도가 비슷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는 벌에게 좋은 나무 6개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로 벚나무, 산딸나무, 참나무, 단풍나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밀원식물이라고 선정한 백합나무는 메릴랜드주가 자생지이지만 꿀벌에게 좋은 6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숲에 있는 나무들을 그대로 두는 게 벌에게 가장 좋다는 걸 메릴랜드주에서 보여주고 있다. 오직 꿀 생산을 위해 다양한 나무가 있는 숲을 왜 몇 가지 종류의 단일한 숲으로 바꾸려고 할까?

2월 중순부터 숲은 딱따구리의 드러밍 소리로 경쾌하다. 둥지를 만드느라 부리로 나무를 두드리는 걸 '드러밍'이라고 하는데 이 소리가 들리면 틀림없이 봄이 온 거다.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기르려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딱따구리는 둥지를 뚫기 전에 나무줄기를 빙 돌아가며 부리로 쪼아본다. 둥지로 삼을만한 나무인지 살피는 것이다.

양봉 위해 밀원숲 조성하는 산림청
자연적 숲 확대하는 게 세계 추세
'숲에 손 안대겠다' 공약 나왔으면

이토록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곳에다 새끼를 길러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새들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한 번식용으로 둥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딱따구리는 번식을 위한 둥지뿐만 아니라 잠자기 위한 둥지도 갖고 있다. 어떤 둥지가 번식 둥지인지, 잠자리 둥지인지를 나무 굵기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번식 둥지는 새끼를 여러 마리 길러야 해서 나무줄기가 적어도 지름 30㎝는 넘어야 한다. 이 정도 크기의 나무가 있는 숲을 탄소 흡수력이 떨어진다며 베어버리고 어린나무를 심는 게 우리나라의 산림정책이다.

딱따구리가 파 놓은 둥지에 이런저런 신세를 지며 사는 동물이 무려 15종이나 된다. 딱따구리가 사용하고 있는 둥지를 파랑새, 동고비, 큰소쩍새 등이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 둥지에는 소쩍새, 원앙, 하늘다람쥐, 다람쥐뿐만 아니라 말벌 같은 곤충도 와서 집을 짓고 산다.

나무가 죽으면 나무딱정벌레, 나무좀벌레, 기타 곤충들이 찾아와 나무를 먹는다. 이들은 나무를 소화하는 곰팡이를 가지고 온다. 딱따구리는 죽은 나무를 두드려 나무를 쪼개고 벌레를 찾아먹는다. 이렇게 나무를 노출시킴으로써 더 많은 곤충과 곰팡이가 나무에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킨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무는 흙으로 돌아가 재활용된다. 진정 우리 숲을 가꾸는 건 누구인가?

선거철이 다가오니 정치인들에게 기후 공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숲을 더 이상 손대지 않고 잘 보존하겠다'가 내가 가장 요구하고 싶은 공약이다.

社 說

정부·의료계, 스님들의 호소를 들어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으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들이다. 전공의들의 이탈에 항암주사를 맞는 데, 6시간을 대기해야 하고, 예약했던 수술들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기도 했다고 한다.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시술을 받지 못한다니 이것이 진정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다.

이런 상황이니 불교계 종단 수장들마저도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호소하고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호소문을 통해 "생명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다. 전공의 여러분들의 현장 복귀는 생명의 가치를 살리는 소중한 공헌이다. 조속한 복귀로 생명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도 각각 발표한 호소문에서 의료진들이 조속하게 환자 곁으로 돌아갈 것을 호소했다. 또한, 총무원장스님들은 정부에게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진과 대화해 나갈 것도 촉구했다.

스님들의 말처럼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도리다. 정부도 의료계도 한 발짝 물러서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승가결사체, 풀뿌리 전법 이끌길

조계종 교육원이 각계각층에서 전법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결사체 25곳을 선정해 종단 인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승가결사체 신규 단체는 7곳이며, 18개 단체를 재인증했다. 올해로 7년째를 '승가결사체 전법교화 활동 연수인증 제도'는 전법교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승가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노숙인 복지포교로 잘 알려진 '다나'의 탄경 스님이나 소외계층에 빵을 구워 전달하는 '자비애빵' 결사체가 발굴되기도 했다.

올해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스님들이 결사체를 만들어 인증했다. 군종교구장 법원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정신을 계승해 역사·환경·문화재 등을 순례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상월삼조회'를 만들어 인증받았고, 세광 스님은 군장병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군포교에 나서는 '호국붓다'라는 결사체를 구성했다.

이밖에도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불교학생회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불전법단', 계층별 출가안내를 기획해 출가진흥에 기여할 '네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법·자비행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비종교인이 종교인보다 많은 '탈종교사회'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어지간한 노력으로는 새로운 신자들의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스님들이 펼치는 승가결사체의 전법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승가결사체가 풀뿌리 전법을 이끌어 불교중흥의 초석을 놓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전국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적이야!

개정판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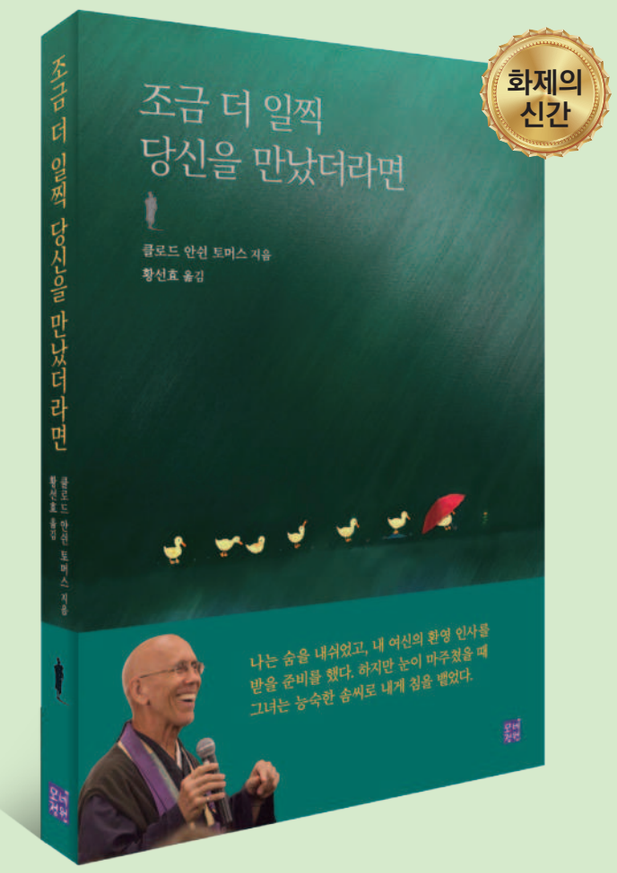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화제의 신간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모네의정원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